사도행전 강해

AN EXPOSITION ON THE ACTS OF THE APOSTLES

〔3판-수정중〕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5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으로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성경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강해는 성경 본문의 뜻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강해는 오직 작은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심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간절함과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 남편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아내를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성도들과 합정동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내용 목차

서론 ····· 7
1장: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심 ····· 9
2장: 성령께서 오심 ····· 19
3장: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함 ····· 31
4장: 공회 앞에서 증거함 ····· 36
5장: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함 ····· 47
6장: 일곱 사람을 택함 ····· 57
7장: 최초의 순교자 ····· 63
8장: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 ····· 84
9장: 사울을 부르심 ····· 99
10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됨 ····· 110
11장: 안디옥 교회의 설립 ····· 116
12장: 헤롯의 핍박과 죽음 ····· 122
13장: 최초의 선교사 ····· 128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함 ····· 139
15장: 예루살렘 회의 ····· 145
16장: 빌립보에서 전도함 ····· 152
17장: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에서 전도함 ····· 159
18장: 고린도에서 전도함 ····· 165
19장: 에베소에서 전도함 ····· 171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함 ····· 177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힘 ····· 184
22장: 무리들 앞에서 증거함 ····· 191
23장: 공회 앞에서 증거함 ····· 198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함 ····· 204
25장: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함 ····· 209
26장: 아그립바 왕 앞에서 증거함 ····· 214
27장: 로마로 호송됨 ····· 220
28장: 로마에서도 전도함 ····· 226

본문 혹은 각주에 자주 사용된 약어

KJV (King James Version),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영어번역본들
Byz (전통적 비잔틴 다수 사본들), M (전통적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다수)
TR (전수본문 성경)
$p^{45\ 50}$ (파피러스 사본 45번-3세기, 50번-4-5세기)
ℵ (시내 사본-4세기), A (알렉산드리아 사본- 5세기), B (바티칸 사본-4세기)
C (에브라임 사본-5세기), D (베자 사본-5세기)
it^{d} (옛 라틴어역 d사본-5세기)
vg (라틴어 벌게이트역-4-5세기) vg^{cl} (벌게이트역 클레멘타인판-16세기)
vg^{ww} (워즈워스-화이트판-19세기), vg^{st} (스투트가르트판-20세기)
lat (다수의 옛 라틴어역과 벌게이트역)
latt (대다수의 옛 라틴어역과 벌게이트역)
syr^{p} (옛 수리아어 페쉬타역-4-5세기)
cop^{sa} (콥트어 사히딕역), cop^{bo} (보하이릭역-4-5세기)
cop^{meg} (콥트어 Middle Egyptian역-4-5세기)
arm (아르메니안역-5세기)
$Irenaeus^{lat\ gr}$ (이레니우스-2세기, lat-라틴어 저서, gr-헬라어 저서)
Cyprian (키푸리안-3세기), Origen (오리겐-3세기)
Tertullian (터툴리안-3세기)
$Diatessaron^{arm\ syr}$ (디아테사론[=타티안의 사복음서 대조-2세기] 인용-4세기)
ms (소수의 사본들), mss (다수의 사본들), pt (일부의 사본들)
* (본래의 본문), ( ) (대략적으로 일치함)
BDAG (F. W. Danker, rev. &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Thayer (Joseph H. Thay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Poole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옛신앙, 2020).
http://www.oldfaith.com/00download/04text/00NTtextual.pdf

서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다. 저자는 본서의 서두에 자신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1:1-2). 사복음서 중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까지(1:2) 쓴 책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고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쓴 것을 볼 때 저자가 쓴 책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본서에 '우리'라는 구절들(행 16:10-17; 20:5-21:18; 27:1-28:16)은 저자가 사도 바울의 동행자이었음을 증거하는데, 누가가 그러하였다(딤후 4:11). 또 본서에 의학적 용어(28:8, 열병 πυρετός, 이질 δυσεντερία 등)나 세심한 진술들[1]은 저자가 의사라는 사실에 적합하다.

정경에 대한 무라토리 단편에는 "모든 사도의 행적은 다 한 권의 책에 기록되었다. 누가는 자기 생존시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자세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주기 위해 수집하였다"고 써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본서를 인용하면서 누가의 글이라고 증거하였다(*Stromata*, 5.1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애굽교회에서, 이레니우스나 무라토리 정경은 서방교회에서, 터툴리안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누가 저작성을 각각 증거하였다(디이슨, p. 179).

본서의 **저작 연대**는 주후 62년경일 것이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온 때(주후 60년경)로부터 2년쯤 지난 때에(행 28:30) 본서

---

1)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심, 120명의 제자들의 모임, 사도 한 명의 보선(補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15개 지역명, 고침받은 앉은뱅이의 나이 40여세, 스데반의 설교 내용,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 대한 언급, 천부장 루시아과 총독들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베스도과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의 이름, 사건의 연대적 서술, 백부장의 이름과 소속 부대 이름, 로마로 가는 배 이름들, 경유한 지명, 유라굴로 광풍, 배에 탄 인원수 276명, 멜리데 섬, 보블리오 등 여러 인명들과 지명들.

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사도행전의 **특징적 주제**는 전도이다. 본서는 승천하신 주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그의 제자들 속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전파했으며 또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본서는 교회 역사 초기부터 '사도들의 행전'이라 불리었으나, 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증거한다. 또 본서의 중요한 한 목적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 사역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또 열두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와 후에 부름을 받은 바울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의미이었다. 원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문은 사도 바울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과 자신들의 사역의 일치성을 증거하였다(행 15:25-26).

사도행전은 몇 가지 **특징적 내용들**을 가진다. (1) <u>성령님의 강림과 사역을 증거함</u>. '성령님의 행전'으로 불림. (2) <u>선교의 책</u>. 초대교회의 전도 활동들과 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증거함. 1-7장, 예루살렘에서; 8-12장,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13-28장, 수리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3) <u>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룸</u>. 1-12장, 베드로의 사역; 13-28장, 바울의 사역. (4) 24개의 설교들 혹은 연설들이 나옴(그 중 9개는 베드로의 설교이며, 9개는 바울의 설교임. 그 외에 야고보, 스데반, 가말리엘, 데메드리오, 서기장, 베스도의 것이 1개씩). (5)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됨(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기타 여러 사역자들, 로마의 관료들). (6) 바울의 서신들(목회서신 제외)의 배경을 말해줌. (7) 바울이 예루살렘을 4번 혹은 5번 방문함(9:26-30; 11:28-30; 15:1-29; [18:21-22--가이사랴?]; 21:15-23:30).

1장: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심

1-11절,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심

〔1-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본서를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다. '데오빌로'가 누구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던 것 같다. 누가복음 1:3에서는 그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데, '각하'라는 원어(크라티스토스 κράτιστος)는 총독들에게 사용된 용어이었다(행 23:26; 24:3; 26:25).

누가는 사도들을 '그의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부른다. 사도들은 주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었다. 마가복음 3:13-14,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택하셨다는 사실에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가 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하기 전에 그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증거한다. 그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그의 승천도 없으셨을 것이다. 누가는 주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한다. 복음서들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2]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심지어 5백여 형제들이 있는 장소에

---

2)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로, 마태복음은 4가지, 마가복음은 5가지, 누가복음은 7가지, 요한복음은 6가지, 고린도전서 15장은 5가지를 들었다.

나타나셨다. 또 그가 나타나신 기간이 40일이나 되었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다. 그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다(마 4:17).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중심 내용이기도 했다. 사도행전 28:23, 31,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될 나라이다.

〔4-5절〕 사도와[그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명하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도록 기다리라고 부탁하셨다. 성령님의 세례는 전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일이며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다. 이제 성령께서 능력으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이었고 주 예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약속하셨던 내용이었다(욜 2:28-29; 요 14-16장). 성령님의 오심은 '몇 날이 못되어' 즉 약 10일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는 성령님의 세례를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하셨다. 물세례는 죄씻음을 상징하고, 성령님의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 속에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이미 죄씻음을 받았

고 거듭난 자들이었다(요 13:10; 15:3).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다(요 7:39).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 속에 거하시고(요 14:16-17)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시고(고전 12:13) 그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6-8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시대나 때]**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나를 위해 증인](전통사본)(KJV) **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나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질문은 비록 사람의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긴 했으나 성경에 예언된 바에 대한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질문과 관심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시대나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시대나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르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행동이 때때로 더딘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의 구원 계획은 서서히 그러나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그 대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명(使命, mission)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가 사도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었다(마 28:16-20; 막 16:15-16).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되는 일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성경을 통해 알았고 믿었으나 사도들은 그와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였던 자들이었다(행 2:32; 13:31).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대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사는 자들, 즉 온 세계의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빠짐 없이 다 구원 얻을 것이다. 후에 예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셈이다. 또 사도들이 남긴 증거의 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에 전파되고 있다.

주께서는 사도들의 사명에 관한 말씀과 함께 그들을 도우실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실제로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전도자들의 능력 있는 전도의 일이 필요했다. 사도들이 받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은, 복음 전파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었다. 초대 교회들의 전도와 교회 설립과 확장의 역사는 단지 사람들이 이룬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해 이루신 역사이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의 기록이며 또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다. 오늘날도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힘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있다.

〔9-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휘포람바노 ὑπολαμβάνω)[취하여](KJV, NASB)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

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전도의 일을 부탁하신 후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12는 그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증거한다. 주께서는 그들의 보는 데서 올리우셨다. 주의 승천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졌다. 사도들은 그것을 함께 목격하였고 따라서 함께 증거할 수 있었다. 본문은 또 구름이 저를 취하여 보이지 않게 했다고 말한다. 구름은 승천하시는 주를 낚아채듯이 취했고 사도들은 구름 속으로 올리우신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또 주께서 올리우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승천은 땅에서 하늘 위로 옮겨진 장소적 이동의 일이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승천(昇天)이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천사들을 통해 진리를 증거하셨다. 주 예수의 탄생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고(눅 2:13-14), 그의 부활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빈 무덤과 주의 부활을 증거했고(눅 24:4), 이제 그의 승천 때에도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였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천사들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을 증거한다. 주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일 것이다. 또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로채듯이 취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는 구름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그 구름은 실제의 구름이라고 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우리는 그의 기적적 탄생도, 그의 많은 기적들 행하심도, 그의 십자가 대속(代贖)도, 그의 몸의

부활도, 그의 승천도, 그의 재림도, 천국도 영생도 믿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였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취하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는 승천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확신해야 한다.

셋째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이 증거한 대로, 제자들이 그의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한다.

넷째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8절). 사도행전은 약속의 성령께서 오셨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도사역을 시작했다고 증거한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도 오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다. 로마서 8: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께서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성령님을 받았다. 이제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사명 곧 신약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

12-26절, 기도와 사도 보선(補選)

〔12-14절〕 **제자들**[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고보와 요한](전통사본),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와 간구](전통사본)**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성경에 감람산 벳바게(마 21:1), 베다니(마 21:17), 감람산(마 24:3) 등은 같은 지역이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약 1.2킬로미터 이내)이었다. 그들은 함께 머물었던 다락에 올라갔다.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있었고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다. 그들은 십일 동안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다.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위해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회이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세 가지 임무는 예배와 양육과 전도라고 본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임무요, 양육은 교회 자체를 위한 임무요, 전도는 세상을 위한 임무이다. 예배와 양육에 있어서 또한 전도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또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고 온전하여진다. 교회의 이 삼대임무는 성경이 밝히 계시하는 바이며 전통적으로 교회가 잘 이해하고 힘써 왔던 바이다. 이 삼대임무를 저버리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닐 것이며, 이 삼대임무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5-20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제자들][3]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말하되] **형제들아, 성령이**[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님] **잡는 자들을 지로(指路)한**[길을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말하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기도회에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었다. 그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께서 세우신 열두 사도의 자리 중 비게 된 한 자리를 보충하게 하셨다. 그는 일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안내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말하였다. 그것은 시편 69편와 109편의 말씀이었다(시 69:25; 109:8).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취된다.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라는 성경의 성격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책임을 더욱 증거한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인 유다의 말로(末路)는 참으로 비참했다. 본문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27:5-8)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주 예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후회하였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었으나 받지 않자 그것을 성소에 던져 넣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었고 그는 죽을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던 것 같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그가 도로 준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그 밭은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리었다.

---

3) Byz D syr it cop^{meg} Cyprian 등이 그러함.

복음서들에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이었고(요 6:64)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는 도적이었고(요 12:6) 죄씻음을 받지 못한 자이었다(요 13:10). 사탄은 그의 마음 속에 주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13:2) 돈에 대한 욕심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은 30개에 주님을 배신하게 하였다(마 26:15). 그는 모든 면에서 직분자의 자격이 없었다. 교회의 직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씻음을 받은 자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사랑치 않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딤전 3:3, 8).

〔21-26절〕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추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말하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베드로는, 주를 배신하고 멸망의 길을 택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한 명을 보충할 것을 제안하며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특히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었다.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에 동감하여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추천했고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었고 그는 열한 사도의 수에 더하여 사도가 되었다.

처음 제자들의 사도 보선(補選)의 사건은 후대 교회에게 본이 된다. 그들에게서는 선거 운동 같은 인간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 그들

에게서는 후보자들의 경쟁이나 자기 선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찾을 수 없다. 또 그들에게는 성대한 임직식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순수하고 영적이었다. 오늘날 교회들도 직분자를 택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먼저 어떤 직분의 역할과 직무를 설명하고, 둘째로 그 직분을 가질 만한 자의 자격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정하고, 셋째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을 후보로 추천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될 것이다. 후보자들이 바르게 추천되고 추천된 자들이 다 자격자라면, 성경의 예처럼 제비뽑기도 결정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직분의 경우, 교회의 관례대로 세례교인들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령님의 세례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친목이나 자선사업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단체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특히 전도를 위해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한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였다. 그는 실패한 직분자의 예이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는 마침내 주님을 배신하였고 범죄하였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을 거울삼아 믿음으로 살고 돈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보선하였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할 증인들이었다.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 직분자들의 부족을 보충하고 정렬을 항상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바른 성경 지식과 믿음과 인격을 구비한 직분자들을 바로 세워 교회의 임무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2장: 성령께서 오심

1-36절, 성령께서 오심

〔1-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하심]을 받고 성령이[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방언들]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무교절 주간에 처음 추수한 보리 곡식단을 안식 후 첫날, 아마 1월 16일에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보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당시 이 날은 일요일 즉 주일이었다고 본다. 그 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1:13에 언급한 '저희 유하는 다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님의 오심은 이와 같이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현상들을 동반하였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독특한 현상들이요 표시들이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오심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와(욜 2:28-29),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때 약속하신 바가(요 14-16장)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오셨다. 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救贖)하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 즉 그들을 중생(重生)시키고 성화(聖化)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시대이다. 성령님의 오심은 성도들에게 큰복이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속에 위로자로 영원히 계신다. 또 그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화(聖化)를 도우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 자신의 죄성(罪性)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영혼들을 구원한다.

〔5-13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들]으로 제자들의[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들]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그들이] (다) 우리의 각 방언[들]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말하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말하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독특한 한 표시는 방언들을 말한 것이었다. 방언이라는 원어(글로싸 γλῶσσα)는 '언어'라는 뜻이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 본문은 약 15개 지역들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 증거한다(6, 8, 11절). 사도시대의 방언은 제자들이 아직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들이었다.

이미 믿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표로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다. 방언은 성령님의 오심의 표시이었다.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방언보다 인격적 신앙생활, 즉 바른 지식과 믿음과 사랑의 삶이 더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4:19,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들을 말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게 될 것도 암시하는 것 같다. 세계복음화의 한 큰 장애물은 언어 소통의 장벽일 것이다. 인류는 본래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나(창 11:1)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연합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인류는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로 하여금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14-21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말하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말하되] **하나님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서서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베드로의 첫 설교이었다. 그것은 원고를 준비한 설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성령님의 감동과 힘에 이끌리어 한 설교이었다.

그의 설교의 요지는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당시 시각이 제3시 즉 오전 9시이니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

의 성취로서 성령님을 받은 현상이라고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부어지시면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구약 백성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한 것이었다. 이것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예수님으로] **큰 권능**[들]**과 기사**[들]**와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한다. 그는 먼저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사실을 증거한다.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나사렛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셨고 물질적 몸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그가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 증거된다. 그것은 사람으로는 하기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역사상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었으며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인 일이 있었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일이 있었는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다.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풍성히 증거했다. 또 이 기적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3-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神性)을 밝히 증거하

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않고 배척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그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심히 악함을 증거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믿을 만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대적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다시 일으키셨다.

〔25-32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웠음**[뵈었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지옥](KJV)**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주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πατριάρχης)(patriarch)(KJV, NASB)[족장]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位)**[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지옥](KJV)**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를 하나님이**[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편에 예언된 바임을 증거했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께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그때까지 그들 중에 있었다. 그의 육체는 다 썩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시편에서의 그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편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

〔33-36절〕 하나님이[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

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님]**를 하나님이**[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시편 110편을 들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음을 증거한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셨다. 또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의 원수들은 사탄과 악령들이다. 그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러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구원 얻은 자들의 성화(聖化) 즉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그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표로 방언들을 하였다. 그들이 말한 방언들은 외국어이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한 것은 세계복음화의 암시이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바른 지식과 온전한 사랑의 인격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어나 소리를 높여 담대히 전도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했다. 그것은 복음서들이 증거하고자 한 복음의 내용이다(요 20:30-31).

37-47절, 초기 예루살렘 교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의 전도 설교는 효력이 있었다. 그것은 성령님의 활동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 찔림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었다.

〔38-39절〕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다'는 원어(메타노에오 μετανοέω)는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 없이 사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로, 죄의 낙을 누리던 데서 죄를 미워하는 데로, 예수님을 부정하던 데서 예수님을 믿는 데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회개는 생각의 전환이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다. 세례는 죄씻음을 상징한다. 죄씻음이 중요하다.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과 불행이 왔으나 죄씻음으로 의와 영생과 평안이 온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음을 나타낸다.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성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가며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행하며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약속'은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유대인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방인들 중에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부르심'이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며 부르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부르심으로 사람은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말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전도는 진리의 선포뿐 아니라 '확증과 권면'도 필요하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복음을 확증하며 권면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의 구별도 가져온다.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다. 사람이 세상 풍습대로 살면 망하고 만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약] (원문)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전도와 확증과 권면은 결실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성령님의 활동이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 날에 제자들의 수가 약 3천명이나 더했다. 그들은 다 예수께 복종한 제자들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무리에 3천명의 신입교인이 더해졌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기쁜 사건이었다.

〔42절〕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일에 힘썼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며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다 포함한다. 설교자나 교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가르침이 혼란하면 교회가 혼란해진다. 요즘 교회들은 가르침이 혼란하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교회연합운동, 은사주의, 여성 안수, 열린 예배 등 별별 풍조들이 교회들 안에 들어왔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단들이 포용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확고히 서야 한다. 참된 기독교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제이다. 그것은 서로 문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남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친절하고 진실을 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 성찬식을 행했고 성도들 간의 식탁교제도 힘썼다.

셋째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곧 성화를 위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참된 교회들의 건립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힘의 통로이다.

〔43-45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聖化)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두려움이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구원의 진리들을 확증하셨다(히 2:3-4). 기독교는 기적들로 확증된 종교이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했음을 보인다. 그것은 정상적 교회의 모습이다. 또 그들의 교제는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공동 소유로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내어놓았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교회의 교인들이 형제 자매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는 구제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먹고살라고 가르쳤고(살전 4:11; 살후 3:12) 친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본을 보여주었다(행 20:34-35). 또 그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하였다(살후 3:10). 그러나 재산이 넉넉히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다.

〔46-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카트 오이콘 κατ' οἶκον)[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전통사본)[4]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다른 이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집 곧 성전(聖殿)이다. 우리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써 모여야 한다(히 10:25).

또 그들은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4) Byz (D it^{d}) syr^{p} (cop^{meg}) 등에 있음.

었다. 이것은 성찬식과 식탁 교제를 가리킬 것이다. 성찬은 성도들의 엄숙한 교제의 표시이며 식탁 교제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였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찬송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사 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었다(엡 1장).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시 33:1).

그들은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구제를 힘쓰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다. 신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그들은 기회 있는 대로 전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성도들의 행실의 본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 결과, 주께서는 날마다 그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다.

전통본문에 의하면, 본절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 조직이나 외형적 건물이 아니고 믿는 이들의 모임이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순종하며 서로 교제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또 바른 말씀의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믿고 실천함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청산하는 것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우리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님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특권이다.

둘째로, 제자들은 그 오순절에 구원의 큰 결실을 보았다. 약 3천명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다. 그것은 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다. 곡식 추수는 대략 오순절 기간에 그친다. 가을에는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 등을 거두어 저장한다. 오순절은 사람의 거듭남을 상징한다. 그 날 하나님께 드리는 누룩 넣은 떡 두 개는 구원 얻은 자들, 즉 죄성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켰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누룩 넣은 떡들과 같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셋째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후대 교회의 본이 된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았다.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모일 때마다 성경적 설교와 교훈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

둘째,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각 집에서 모여 성찬을 나누었고 식탁교제를 하였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고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서로 교제하며 병든 교우들을 방문하며 궁핍한 교우들을 돌아보며 구제해야 한다.

셋째,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다. 우리가 성화하는 길은 기도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할 힘을 얻는 길도 기도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 찬송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한다.

3장: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함

〔1-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美門)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제9시는 오후 3시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같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御印)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단 6:10). 하루 세 차례는 제3시(오전 9시), 제6시(정오), 제9시(오후 3시)의 세 차례였다고 보인다(행 10:9, 30).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때 사람들은 한 앉은뱅이를 메고 왔다.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美門)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이니 참으로 불쌍한 자이었다.

〔3-10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말하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말했다. “우리를 보라.”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은 즉각적이며 완전했다. 그것은 돈 얼마를 구제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졌다. 난생 처음 걸어 본 그 앉은뱅이의 기쁨과 감격은 참으로 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 베드로로 하여금 그 40여년간 고생한(행 4:22) 앉은뱅이를 고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사람들은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해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

〔11-1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주랑](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집)**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께서] **그 종 예수**[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건강하게] **하였나니 예수**[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솔로몬 주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자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인정한 바대로 예수께

서 죽을죄가 없는 자, 즉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시요 생명의 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라고 말하였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여러 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앉은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만 자가 아니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17-2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즐거운]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무리들에게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사람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소식이다. 회개는 창조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죄는 멸망의 원인이지만, 회개는 구원의 길이다.

베드로는 또 사람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얻으면 즐겁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과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또 그것들이 천국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할 것이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회복의 때까지 그를 천국에 두실 것이지만, 그 때가 되면 성경에 밝히 증거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이며 그때 온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다(마 24:30; 계 22:20; 살전 4:16; 살후 1:7-8; 벧후 3:10). 만유의 회복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이며 인류 역사의 목표이고, 또한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다(계 21:5).

〔22-26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께서]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또 이 시대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시대요,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곧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회복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시대임을 증거하였다. 또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고 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대속 사역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영적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육체적, 물질적, 환경적 회복을 포함한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면서 앉은뱅이된 걸인을 동냥할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그들 속에 계셨다.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 주께서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들 속에 살아계신다. 그는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었다(15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창 12:3; 22:18).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를 일으키셨다. 그를 믿는 믿음이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고 그로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한번 더 자신을 증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죄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 없이 함 곧 사죄와 칭의(稱義)가 곧 구원이다.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의와 선을 행해야 하며 구원의 즐거움과 참 평안을 누려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주는 새로워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빠르게 지나가는 이 허무한 세계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며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릴 천국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유의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악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며 오직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한다.

4장: 공회 앞에서 증거함

1-22절, 공회 앞에서 증거함

〔1-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성전 경비대장]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道)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제사장들은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싫어하였다. 중생치 못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것이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활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듣고 믿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엡 2:8). 남자들의 수가 약 5천명이 되었다. 이 말은 솔로몬 주랑에서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수가 약 5천명으로 늘어났다는 뜻일 것이다(칼빈, 매튜 풀).

〔5-7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관원’이라는 원어(알콘타스 ἄρχοντας)는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말로 아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사두개파에 속하였다. 당시에 시무하는 대제사장은 유대인 공회의 의장이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으나 바리새파에 속하였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로 성경의 사본을 보존하고 필사(筆寫)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는지 물었다.

〔8-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가로되**[말하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그들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가 죄 없으셨음과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롬 1:4).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자주 표현했다(2:22; 3:6; 10:38).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님을 가리킨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는 독특한 인격 곧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성(神性)의 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그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그 앉은뱅이를 낫게 한 것이다.

〔11절〕 **이 예수는**[께서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되셨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118:22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 그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너희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켰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마침내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 그를 죽이게 했으나, 그 버린 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집의 좌우의 벽을 연결하는 기초석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이시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중요하게 사용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다.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였다(딤전 2:5).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유일한 구주이시다. 우리는 이 유일한 구주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타종교와의 대화분과장이었던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타종교인들은 회개의 대상이 아니고 동료 순례자들이라고 말하였다.[5] 감신대학 학장이었던 변선환 교수도 타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

---

5) S. Wesley Ariaraja, *The Bible and People of Other Faiths* (WCC, 1985), pp. 9-11, 56.

다"고 말했다.[6]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한다.

〔13-14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파르레시아 παρρη-σία)[담대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凡人)**[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반대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의 담대한 발언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었다(마 10:19-20).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었다(출 4:11-12).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변(口辯)을 주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것 같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말했었다(요 7:15).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가르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이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담대하고 은혜스럽게 증거하게 도우신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반대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앉은뱅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리는 항상 당당하다. 진리에 대한 정당한 반대는 없다. 진리의 사람들에 대한 반대들은 항상 있어왔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러했으나, 모든

6) 기독교 사상, 제27권 제5호 (1983. 5), 155쪽.

거짓된 반대들은 다 파하여지고 진리는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15-16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말하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그노스토스 γνωστὸς)[확실한, 다툴 여지가 없는]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앉은뱅이가 나은 것은 공회원들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어두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진리는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이루어진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다(행 2:22).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항상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려 하였다.

〔17-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살후 3:2).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롬 3:11).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

〔19-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의 사건들과 그의 명령들을 말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21-22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원수들의 입을 막으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셨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수는 크게 늘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조건과 별개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앉은뱅이를 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고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류의 구속(救贖)을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는 없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이며 그것을 포용하는 것은 배교이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한다.

셋째로,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가?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23-37절,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대처

〔23-28절〕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말하되] **대주재여,** [주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하나님이시니이다](전통본문).[7] **또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를 거스려**[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잡혀 공회 앞에서 심문을 당했고 위협을 받고 놓여났다. 그들은 동료 사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다. 그것은 창세기 1:1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다. 창조자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무신론이며 인본주의(휴머니즘)이다.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곧 '대주재'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되 일심으로 기도하였다. 신자들의 마음을 합한 기도는 힘이 있다. 주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8:19). 또 제자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묵상기도도 참된 기도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약하여 명상이나 망상이 되기 쉽다.

---

7) Byz D it^{d} vg^{mss} syr^{p} $cop^{sa\ meg}$ $Irenaeus^{lat}$ 등이 그러함.

그러므로 기도는 또박또박한 말로 하는 기도가 좋고 특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속한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주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히 5:7).

사도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도들은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다. 또 그들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과 대항까지도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음을 증거하였다.

〔29-31절〕 주여[주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내려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8]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였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했다. 위협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위축과 의기소침과 낙심, 포기, 좌절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것은 변절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함, 담대함, 용기, 인내, 충성이 필요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

주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요 16:33). 또 그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계 2:10).

---

8) Byz p^{45} ℵ* (A B) D 등에 있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 말했고(고전 15:58), 또 그는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교훈했다(딤후 4:5). 우리도 담대함을 간구해야 한다.

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사도 시대에는 병 고침과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사도행전 2: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며 신약교회가 아직 튼튼하게 건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 진리를 확증하셨으나, 하나님의 기사들과 능력들은 교회 역사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들 없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고전 1:22-23) 교회의 확장은 기적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 모든 사도들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다. 사람은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 쉽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담력을 얻는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음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다. 전도의 담력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에서 나온다.

〔32-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함께 사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

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위로의 아들(KJV), 격려의 아들(NASB)]) 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했으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담대함을 얻었고, 또 구제와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고, 또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 헌금했고 그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그런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함에서 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한 것이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졌고 한 순종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물론, 기독교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신 15:11). 또 부지런한 자는 부해지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잠 10:4). 그러나 비록 성경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다.

시편 24:1에서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증거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즐거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초대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물질적 여유가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정신이었다. 구제와 선행은 참된 믿음과 순종의 표이다(고후 8:8).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심하여 창조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가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다. 그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를 주장하신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한다. 또 우리는 기도하되 일심으로 또 때때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잘 응답하신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담대함을 기도하였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용기, 인내와 충성이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 인내와 충성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것이다. 또 믿음의 변절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 계신다. 그는 우리의 위로와 힘과 담대함의 원천이시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힘을 잃어버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과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교우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이다. 헌금의 한 주요한 용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5장: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함

1-16절,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심

〔1-6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도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행전 4:34-35,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4:37, "그[바나바]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2,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도들은 사도들을 신뢰했고 사도들은 그들이 위탁한 재물을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중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거짓말과 탐심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들의 속에는 사탄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단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이려 한 것이며, 단지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는 거짓말

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요 8:44).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이런 거짓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교회가 이런 거짓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급속히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 속에 물질적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하긴 해야 겠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다 드리기가 아까웠다. 그들에게는 물질적 욕심이 있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골 3:5). 그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를 즉시 죽게 하셨다.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었다(레 10:1-2). 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궤 곁에서 죽었었다(삼하 6:6-7).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우시다.

〔7-11절〕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말하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역시 즉시 죽었다. 그들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데 있다고 본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복종하였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사도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거짓말이나 욕심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도직의 권위의 문제이었다.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록한 말씀 곧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신뢰해야 했고 그들의 영적 권위 앞에 겸손히 복종해야 했다.

〔12-16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백성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주랑]**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다.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얻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단지 병자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었다. 만일 그 이유뿐이라면, 왜 사도 시대 이후에 그런 기적들이 계속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도들을 통하여 행해진 기적들은 그들의 권위를 확증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교훈들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브리서 2:4,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12,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중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기적들을 행함은 사도들의 신분증과 같았다. 여기에 사도들의 글인 신약성경의 권위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세에 거짓 기적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셨다(마 24:11, 24). 사도 바울도 같은 교훈을 하였다(살후 2:9-1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을 위해 충족한 성경을 주셨다(사 8:20; 눅 16:29, 31).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또 실천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적주의,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본몬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요 지옥 갈 죄악이며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큰 악이다. 교회가 거짓말하는 자를 고의로 용납하면 참 교회의 표를 잃어버릴 것이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탐욕과 돈 사랑은 우상숭배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큰 죄이며 성도가 버려야 할 악이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케 만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사도들과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들의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다. 사도직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복종해야 했다.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이다.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권위 있게 전달되고 받아져야 했다. 오늘날 목사들과 장로들은 감독자의 직분을 받았다(행 20:28).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경적 교훈에 복종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히브리서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는 그들의 성경적 교훈과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17-42절, 공회 앞에서 또 증거함

〔17-21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말하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가둔 것이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늘 함께하셨고 비상한 때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셨다. 사도 시대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물론, 사도 시대 이후에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쳤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죄의 벌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길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죽어도 장차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새벽에 공회가 소집된 것 같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대신 그들을 제재할 궁리만 하였다.

〔22-26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말하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대제사장들](전통사본)**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

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러라.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리시며 느끼게 하셨다.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 사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 말에 호감을 가졌던 것 같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반 신자보다 못하게 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가 될 수 있다.

〔27-28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말하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敎)**(디다케 διδαχή)[가르침]**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옳은 말이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나 주장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즉 바른 교리와 교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성경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누구든지 어떤 사상을 주장하고자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어떤 사상을 반박하고자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반박해야 한다. 건전하게 해석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은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30-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의 발언의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이 증거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심, 사람들이 죄를 회개함, 죄사함 등이었다. 이것들은 기독교 복음의 요지들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럼으로써 그는 우리의 왕과 구주이심이 확증되셨다. 또 사람은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교회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요지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32절〕 **우리는 이 일**[일들]**에** [그의](전통사본) **증인이요 하나님이**[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께서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친히 보고 들은 자들이었다(행 1:21-22). 하나님의 복음은 증인들에 의해 확증되었다. 이것은 사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확실한 근거는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이다. 기독교 복음은 진실한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들에 근거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 성령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셨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도들 속에 오셨고 그들을 통해 기적들을 행하셨다. 히브리서 2:3-4,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오늘날 성령께서는 성경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성경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경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유대의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저들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또한 죽이려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 행할 수 있었겠는가? 사도들이 무슨 죽을 잘못을 범하였는가?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과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것이 왜 죽을죄가 되는가?

〔34-39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좇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교법사는 율법학자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었다(행 22:3). 가말리엘은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명한 후에 이전의 인물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어 동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을 조심하여 다루라고 하면서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조만간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 선생의 정당한 충고를 통해 사도들을 그 살벌한 공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다. 그는 그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나 자유로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 때나 쉽게 죽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마 10:29-31).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사도들은 이로써 죽음의 위험을 면했다. 그러나 가말리엘 자신은 복음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였다. 이처럼 초대의 성도들은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매도 맞았다. 오늘날에는 자유로이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전도가 금지된 지역도 있으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전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41-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주님의 제자들은 핍박받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죗값은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며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보이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53-54,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人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구주이심을 전했다. 구주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이다. 오늘날 무지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한다. 또 왕 혹은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보인다. 로마서 1:5-6,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죄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제자들은 옥에 갇힘과 죽음의 위협과 심문과 책찍질을 당하였다.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길이었다. 참된 신앙생활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도 있으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딤후 3:12; 행 14:22).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다(빌 1:29).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되다(마 5:11). 오늘날 우리의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해야 한다.

6장: 일곱 사람을 택함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자주 부른다(행 2:41; 6:1, 7; 11:26, 29; 13:52; 14:22; 19:9; 20:30 등). '제자'는 선생의 말과 행위를 배우고 본받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말씀과 행위를 배우고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더욱 커 갔다. 제자들의 수는 날로 더 많아졌다. 오순절에 3천명 구원을 얻었고(행 2:41)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를 고친 후 제자들의 수는 5천명이나 되었고(행 4:4) 그 후에도 구원 얻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었다. 헬라파 유대인은 세계 각곳의 출신으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 출신 유대인을 가리킨다. '매일 구제'라는 말은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아마 고의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불평하는 말이 생긴 것은 좋지 않았다. 사람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 안에는 때때로 문제가 생긴다.

〔2-4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식탁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아니하니라. 그러므로](전통본문)[9]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

9) Byz lat syr 등이 그러함.

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專務)하리라 하니.

열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의 일에 시간을 너무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였다. '식탁 봉사의 일'이라는 원어는 금전출납의 일도 내포할 수 있다(BDAG). 그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專務)하리라"고 말했다.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으므로 식탁 봉사나 구제나 금전출납의 일로 인해 말씀 전파의 일이 소홀히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운 직분이 집사직이다. 본문에 집사라는 말은 없으나 그 직무가 그렇다. 식탁 봉사나 구제나 금전출납의 일을 목사와 장로들이 해서는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게 된 것이다.

집사들의 자격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다. 집사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원어(아네르 ἀνήρ)는 '남자'라는 뜻이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남자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무엇보다 인격적 성숙함이라고 말했다. "감독(장로)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들도 단정하고[존경할 만하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자들[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존경할 만하고]"(딤전 3:2, 8, 11).

집사들의 수는 일곱 명이었다.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일곱 촛대(교회), 일곱 별(목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뿔, 일곱 눈(하나님의 일곱 영) 등. 5천명 이상 교인들이 있었을지라도 단지 일곱 집사

를 세웠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집사의 수가 많은 것은 인본주의적 병폐라고 보인다. 초대교회는 직분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

집사와 달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였다.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뿐 아니라 공적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 전하는 것'은 전도와 설교와 권면의 일을 포함한다고 본다. 목사와 장로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장로교회의 헌법은 목사의 주요 직무가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講道)[설교]하는 것이며, 장로의 직무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교리적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막고 그들을 심방하여 위로, 교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하였다.

〔5-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모인 무리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였고 일곱 명의 사람들을 선택해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 일곱 명 중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집사들을 선택하였다고 보인다.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21-26에 기록된 사도 한 명의 보선(補選)이나 사도행전 14:23의 장로 선택의 경우를 참고할 때, 그들은 후보를 추천하고 제비뽑기나 거수 투표로 선택했을 것이다.[10] 사도들이 한 안수는 직분을 위탁하고 그 직분에 필요한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는 상징적 의식이었다. 그들의 임직식

---

10) 사도행전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말씀에서 '택하다'는 원어(케이로토네오 χειροτονέω)는 본래 '손을 내밀어 뽑다'는 뜻이다. 이 말은 거수 투표를 암시하는 것 같다.

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고 기도와 안수로 이루어진 조촐한 의식이었다고 보인다. 임직식은 실상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야단스러운 축하행사와 꽃다발과 사진촬영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테 피스테이 τῇ πίστει)[그 믿음에](KJV, NASB, NIV)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그 믿음에 복종하였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영혼 구원의 일과 믿는 자들의 수적인 증가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일하신 결과이었다.

〔8-10절〕 스데반이 은혜[믿음](전통사본)(KJV)**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자유인들의 회당,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일곱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집사이었으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였다. 기적들은 주로 사도들이 행하였다. 사도행전 2: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5:12,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주랑에 모이고." 사도들의 표는 기적 행하는 것이었다(고후 12:1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 그리고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들로써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다(히 2:4). 그러나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중에도 기적

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중 하나이었다.

스데반은 또 대적자들과 변론할 때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하였다. 자유인들의 회당,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들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와 변론할 때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리버디노'는 '자유인들'이라는 뜻으로 이방 나라에 포로된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그들은 스데반을 말로 당하지 못하자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11-14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선동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충동시켰고] **와서** [그를]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말하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탄의 방해와 핍박이 항상 있다. 세상에서의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러하다. 스데반을 대적한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으나, 속으로는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이해심이 없고 악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거짓되고 불의하였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다. 또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데려갔다. 더욱이,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계속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모세가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다. 그런 유의 거짓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이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며 지옥 갈 만한 죄악이다(요 8:44; 계 21:8).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였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스데반의 얼굴이 선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나타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의 얼굴에는 교만, 미움, 분노, 악독이 없었고 온유와 겸손,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성화된 성도의 모습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집사로 세웠다. 감독이나 집사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며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판이 요구된다. 교회 직분자들은 신앙 사상의 건전함은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이어야 한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의 교훈대로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속죄사역을 이루셨음과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다.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개시켜 그 앞에 복종케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사탄과 악령들은 스데반이 하지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시켰고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그를 정죄했다. 그러나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음을 보았다. 개인적 신앙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죄성과 세상의 악과 사탄과 싸운다.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도전한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살고 일해야 한다.

7장: 최초의 순교자

1-16절, 스데반의 설교--족장들

〔1-3절〕 대제사장이 가로되[말하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말하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께서]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는 구약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으나, 사도들의 지식에 비하면 그의 지식은 불완전해 보인다. 그는 당시 통용된 70인역 헬라어역 구약성경(LXX)과, 필로와 요세푸스에 의해 보존된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견해에 익숙해 있었다고 보인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와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므로 그가 하나님의 명을 좇아 하란을 떠났다고만 기록되어 있다(창 11:31-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창세기 15:7,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느헤미야 9:7, "(레위인들의 기도) 주께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

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우상숭배의 환경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새 민족과 새 국가를 시작하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천국을 예표하였다. 이 세상은 우상숭배로 인해 멸망할 장망성(將亡城)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행 2:40).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매(메타 토 아포다네인 μετὰ τὸ ἀποθανεῖν)[죽은 후에](NASB, NIV) **하나님이**[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고, 아브람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한다(창 11:26, 32; 12:4). 아브람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면 그는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씀에 잘 맞지 않는다. 아브람이 세 아들들 중 막내라고 가정해도 큰 형과의 나이 차이가 60년이나 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차라리 아브람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아직 145세이었고 아브람이 그 곳을 떠난 후에도 60년이나 더 하란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창세기 11장 끝에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 사건이 12장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모세가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었다고 본다(창 25:17과 25:20; 35:28과 37:2 참조).

〔5-7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사백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나 그 곳을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고 단지 약속하셨을 뿐이었다. 아직 수백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창세기 15:13-14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과 학대를 당할 것이며 그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하였던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곳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후의 일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오랜 세월 후의 일들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서 할례의 규례를 주셨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 끝을 베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성을 잘라내는 성결을 상징하며 그것은 중생(重生) 곧 거듭남을 의미하였다고 본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먼저 죄씻음을 받아야 한다. 죄가 사람의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요지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의 죄성은 정결함을 얻어야 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9-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께서]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었다.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무서운 죄악이었다(마 27: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

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다. 물론 요셉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삶을 기뻐하신다. 성결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요셉을 기이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11-14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음과 같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든 큰 흉년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까닭이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창세기는 출애굽기에 꼭 필요한 역사적 배경이 된다.

스데반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을 청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헬라어 70인역 구약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헬라어 70인역 성경 창세기 46:20은 야곱의 자손으로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수의 합계를 75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에는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을 빼고 70명이라고 말하였다.

〔15-16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데반은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세겜에 장사된 것처럼 말한다. 그

러나 그것은 대략적 표현이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마므레(헤브론, 창 23:19)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고(창 50:13) 요셉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에 매장되었다(수 24:32; 창 33:19). 그 외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들은 요셉처럼 세겜에 묻혔을 수도 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무덤을 샀다"고 한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샀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데반이 증거한 구약 역사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게 불러내셨다. 그것은 불경건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새 삶을 살라는 뜻이었다. 그는 우리도 이 패역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다(요일 2:15-17).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가 약속하신 주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요 죄씻음의 상징인 할례의 규례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언약의 표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한가지를 힘써야 하는데, 그것은 곧 죄 없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간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오직 섭리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

17-36절, 스데반의 설교--모세를 부르심

〔17-19절〕 하나님이[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전도서 3:1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위에 올랐고 그는 이스라엘의 번창을 막기 위해 그들을 학대했고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게 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했던 애굽 왕은 애굽의 중왕국시대(주전 2000-1780년경)의 제12왕조 중 센우스레트 3세(대략 주전 1888-1852년경)이었을 것이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던 때가 130세이었으므로(창 47:9) 대략 주전 1876년경이었다.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다(창 41:47; 45:6). 모세의 출생은 주전 1527년경이며, 본절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신왕국시대(주전 1546-1085년경)의 제18왕조 때를 가리킬 것이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 아기가 출산하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하였다(출 1:8-22).

〔20-22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소피아 σοφία)[지혜,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의 출생 시기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운 때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출생하자마자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그의 기쁘신 때에 그의 기쁘신 방법으로 이루신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가 부모의 집에서 단지 석 달

을 길리우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은 그를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같이 길렀다. 또 모세의 어머니는 그의 유모로 소개되었고 그를 양육하게 되었다(출 2:1-10). 모세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친 어머니의 품과 기도와 사랑과 경건한 교훈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양육되게 하셨던 것이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사람의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웠다. 그는 당시 애굽의 가장 좋은 궁중 교육을 받았다. 그는 말과 행위에 힘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많은 신체적 훈련도 받았을 것이다. 그의 몸은 튼튼했을 것이다. 그것은 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었다.

〔23-25절〕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느끼는 연령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40세는 일반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였다.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몸도 건강하고 싸움도 잘했다. 그에게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감까지 있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의 그의 여러 가지 준비는 필요했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더욱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었고 또 자기의 동족들은 그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주지도 않았다.

〔26-29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말하되] [사람들아,](NASB, NIV)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무**[동료]**를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말하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싸움을 말리며 화해시키려 했으나 그들은 그의 중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도리어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만 알려졌다. 모세는 두려워 도망쳐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젊은 시절의 꿈과 자존심은 여지없이 꺾이었다. 그는 그 이후 좌절과 포기의 삶을 살아야 하였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며 민족을 위해 고상한 꿈을 가졌던 그가 며칠 사이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날마다 양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던 것이다.

〔30-36절〕 사십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카이 뉜 듀로 καὶ νῦν δεῦρο)[이제 오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께서는] **가시나무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

에게 혹 남아있을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을 비우는 철저한 겸손 훈련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또 많은 인내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또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많이 교제하였을 것이다. 광야는 그에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었다. 이처럼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훈련기간이었다.

4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는 그 광경을 기이히 여기며 그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었다. 그것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날은 그의 기쁘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와 구원자로 부르셨던 것이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였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이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u>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u>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전도서 3:1-2,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우리의 구원은 더욱 그러하다. 로마서 8:30,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

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처한 환경여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곧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를 믿고 섬겨야 한다.

둘째로,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죽을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갓 낳은 아기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자라게 되었다. 그는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고 무술도 통달했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지식과 언변과 건강과 지도력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그는 좌절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실패했다. 그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 편에서 준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단련이 필요하다. 잠언 16:9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했다.

셋째로,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자신을 꺾고 겸손 훈련, 인내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워 사용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 훈련을 받았다. 요셉은 애굽에서 10여년간 종으로 훈련받았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며 10여년간 훈련을 받았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할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렘 1:18).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약 30세까지 요셉과 마리아 아래서 생활하셨고, 또 30세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37-50절, 스데반의 설교--우상숭배에 떨어짐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주][11] **하나님이**[우리 하나님께서][12]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이었다(신 18:15).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도행전 3:22-24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증거된 대로 특별한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보인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시다. 그는 모세보다 크신(히 3:3) 참 선지자이시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살아있는 말씀]**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과 동일시되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본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총회' 혹은 '회중'이라는 말(민 16:3)은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

11) Byz C 등에 있음.

12) M(Byz의 다수)이 그러함.

죽은 글자나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친 음성이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레미야 23:2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39-41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그에게 복종치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죄악된 생활이다. 거기에는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었고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절제함이 없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인 삶을 좋아한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떨어졌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한 죄악된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하였다.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출 32:18-1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크게 노하셨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 그들을 당장 다 멸하지

는 않으셨으나, 그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3천명이나 죽이셨다(출 32:28).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모습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 대신 우상숭배에 떨어졌다.

〔42-43절〕 하나님이[께서]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너희][13]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데서 돌이키셨고 그들을 우상숭배에 버려두셨다. 본문은 송아지 숭배가 하늘의 군대 곧 별 숭배의 일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나온 후 광야에서 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열왕들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해와 달과 별들 숭배로 이어져 내려갔다. 유다 나라 멸망의 시대인 므낫세와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왕하 21:3; 렘 44:17).

스데반은 아모스 5:25-27의 글을 인용한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고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어역 본문을 인용했다고 보인다. 단지 맨 끝에 '다메섹 밖에'라는 말이 '바벨론 밖에'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어 본문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어 식굿은 헬라어 스케네[장막]로 번역되었고 '너희 왕'은 '몰록'으로 번역되었다. '몰록' 혹은 '몰렉'은 바벨론 신을 가리킨다. 히브리어 기윤은 헬라어 레판(Ῥεφὰν)[14]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로마

13) Byz ℵ A C vg cop$^{meg\ bo}$ Cyprian 등에 있음.

14) 레판은 렘판(Ῥεμφὰν), 라이판(Ῥαιφὰν) 등 사본들의 본문이 다양함.

의 농업 신인 토성(Saturn)을 가리킨다.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별이다. 그 크기는 지구의 10배 가량이다. 오늘날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토성은 빛나는 7개의 고리를 두르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별이다. 송아지는 농경 사회에서 풍년과 다산(多産)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별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숭배와 별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흩으셨다.

〔44-47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께서]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께서]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전통본문)[15]**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성막을 주셨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만든 것이었다.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고, 성막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를 섬길 수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중심, 법궤와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였다. 또 그는 성전을 건립하기를 소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48-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사 66:1-2)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15) Byz A C lat syr 등이 그러함.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의 발판이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으로 자신의 특별한 임재(臨在)의 표시를 나타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 구원의 길을 보이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증거하는 데 있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의 긍휼로 받으심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또 왕국의 역사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치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 성전 제도를 통해 제사장 곧 중보자를 주시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새 삶을 모형적, 예표적으로 보이신 제도이었다.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 사람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영이시며 완전하신 영이며 또 초월하신 영이시다. 그는 결코 사람들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다.

단지, 그는 땅 위의 성전에 그의 임재의 영광을 보이시며 또 그 성전을 통해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아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실 뿐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경은 살아 있는 말씀이다. 율법은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귀하다(시 119:72).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 성경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

둘째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떨어졌다. 인류 역사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역사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장 크게 여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보는 즐거움을 크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뿌리깊은 죄성을 알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일서 2:15-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 .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셋째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했다. 구원 얻은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며 그의 피로 죄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51-60절, 스데반의 순교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집사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한 증거 혹은 설교의 결론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다.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는 책망을 반복하여 받았다. 출애굽기 32:9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3에 보면, 모세도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33:5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9:6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했고, 신명기 9:13에 보면,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이다. 신명기 31:27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노라"고 말하였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비슷하다. 신명기 10:16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10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9:26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 44:7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 곧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교만과 무지(無知)는 성령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생치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52-53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프로도타이 προδόται)[배반한 자들](KJV, NASB)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의로우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후손들인 그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고 말하였다.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의인을 배반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며 아담 이후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메시아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셔야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많은 기적들과 병 고침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고 정죄하여 죽게 했던 것이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본문은 스데반의 증거하는 말을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의 말대로 예수께서는 사형당할 만한 악인이 아니셨다. 그는 죄가 없는 자이셨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 것이 죄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를 정죄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들도 양심으로는 예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들의 악한 감정은 이미 그들의 이성과 양심을 어둡게 만들었다. 얼마 전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해 3천명이나 세례를 받았었다. 그러나 스데반 앞에 있던 공회원들은 회개치 않았다.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55-56절〕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人子)가[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 속에 충만히 거하셨고 그를 감동하셨다.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지하셨음을 보인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 때 하늘이 열렸다고 종종 증거한다. 에스겔 1:1,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마태복음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신약성경

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아홉 번 말하였으나(롬 8:34; 엡 1:20; 골 3:1; 히 1:3; 8:1; 10:12; 12:2; 벧전 3:22; 계 3:21), 본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핍박당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심을 나타낸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거나 서 계신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심을 보인다.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신다.

〔57-60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말하되] **주 예수**[님이시]**여, 내 영혼**[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말하되] **주여**[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공회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쳤고 돌로 쳤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도, 깨닫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날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보았었다. 그 사울이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그의 발앞에 둔 것을 보면 그는 그 일에 주동적 인물들 중 하나이었던 것 같다. 바울은 후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라고 말했다(행 22:20).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최후에 대해 두 가지를 증거한다. 첫째, 스데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예수께서도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눅 23:46). 사도 베드

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교훈하였다(벧전 4:19). 스데반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천국과 내세를 확신했음을 보인다. 둘째, 스데반은 그를 돌로 치는 원수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실천한 것이었다(마 5:44; 눅 23:34).

본문에 ‘잔다’는 말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가 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러할 것이다. 그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고전 15:51-52; 살전 4:16-17).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대인의 공회원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스데반을 핍박하였다. 겸손함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충성한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순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천국과 영생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 영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가능하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를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신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며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

셋째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본받아 실천한 것이다. 우리도 순교자 스데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8장: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

본장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믿는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결과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었음을 증거한다.

1-13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됨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온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신앙생활의 길이 항상 평안의 길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지만 때때로 고난과 핍박도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25). 그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요 15:18-20).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행 14:22), 또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딤후 3:12).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충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아직도 더 전도할 일이 남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직분과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크게 운 것은 단순히 사람의 죽음과 이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아쉽게 떠났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죽을 때 성도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가 죽을 때에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후 자기의 모든 동생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우상숭배를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그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게 하셨고 여러 날 만에, 즉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와 죽었다. 역대하 21:20에 보면,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이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파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끌어내어] **옥에 넘기니라.**

누가는 사울에 대하여 서술한다. 사울의 열심은 특별하였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를 다 파괴하려 하였다. 그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다. 그는 후에 갈라디아서 1:13-14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파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잘못된 지식과 판단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서 10:2, 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지식과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다(살전 2:15-16; 계 2:9).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바르고 그래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열심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4-8절〕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표적들]**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주목하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은 유익하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러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듯이, 교회가 당한 큰 고난과 핍박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 고난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주 예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었다(요 4장). 이제 집사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셨다. 무리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들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앉은뱅이들이 나왔다. 하나님의 복음은 큰 능력으로 전파되고 확증되었다. 그 결과,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날도 기적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신 은사이었다. 신약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것이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 이 진리를 증거하셨다. 누가복음 16:29-31, "아브라함이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하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했다(고전 1:22-25).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바울은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도 말했다(롬 1:16).

〔9-13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말하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빌립을 통해 힘있게 증거되었다. 심지어 그 성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마술사 시몬도 복음에 복종하였고 세례를 받았다. 복음은 마술사도 굴복시켰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도 당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야 한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다.

둘째로, 고난을 피해 흩어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마술사 시몬도 굴복시켰다. 구원은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14-25절,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님을 받음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음 전파의 일이 사마리아로 확장되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4:29, "주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행전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바른 강론과 성경적인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은 그 성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고 기록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15-17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을 받는지라.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았으나 그 교회

에 한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위로자로 신약 성도들 속에 오셨다(요 14-16장).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행 2장) 이후, 신자들은 누구나 성령님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는 예외적으로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보인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신 까닭은 그 교회가 사도가 아닌 집사 빌립의 전도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본래 반쯤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믿어 구원 얻고 이룬 교회라는 특별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지체임이 증거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신약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엡 2:20).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보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안수는 그 자체에 효력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안수로 그 교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들은 성령님을 받을 때 방언 등의 성령님의 은사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성도가 성령님을 받는 일에 대해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신자가 성령님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성도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하고, 결코 성령님을 받으라고 교훈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분명하다.

로마서 8: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영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3,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13, “우리가 . . .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1-22,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救贖)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30,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救贖)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19,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요한일서 2:20, 27,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요 14:16) 오셨고 이제 신약 성도들 속에 거하신다.

〔18-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말하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 교회에는 아직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 같은 교인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 마술사이었던 시몬이었다. 교회 속에는 때때로

쭉정이나 가라지가 있다. 그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자란다. 그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마 13:29, 30).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의 회개는 불완전했던 것 같다. 그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자기도 그 권능을 얻어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고 소원했다.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 했다. 그의 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려는 교만과 명예심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자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말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20-24절〕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일](KJV, NASB)**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16]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직선적이게 그를 책망하였다. 시몬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물질만능주의 우상이 있었다. 성도는 돈 사랑을 버려야 믿음의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베드로는 그에게 그의 악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수하고 영적이어야 한다. 모든 죄들을 버리고 씻음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

16) '악독이 가득하며'라는 원어(콜레 피크리아스 χολὴ πικρίας)는 '쓴 담즙'이라는 말로서 '심히 악하다'는 뜻이다(Thayer).

만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동기와 방법이 물질적인 복이나 육신적인 재미나 친교나 오락이나 혹은 명예심이어서는 안 된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께서는 일찍이 수가 성에 복음을 전하셨었고(요 4:39-42), 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또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마을들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증거되었다.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8, 9장에 보면, 에스라는 여러 날, 여러 시간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강론하였고 회중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느 8:1-9, 18; 9:1-3).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곧 순수한 복음을 널리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 오셨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고(롬 8:13-14)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고(엡 4:30)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하고(엡 5:18)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살전 5:19).

셋째로,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마음 속에 돈 사랑과 명예심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악한 마음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수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돈 사랑과 물질만능주의를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힘써 지켜 행해야 한다.

26-40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말하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행하신 일이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지금 전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긴급히 전도자를 파송하셨다. 빌립은 천사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다. 그 길은 광야이었다.

〔27-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천사의 지시에 즉시 순종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 오늘날 수단의 누비아 지역이라고 본다. 그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5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다. 그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약 4배 되는 거리이다.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드린 것을 보면 그 내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사모함으로 먼 곳까지 왔다.

그 내시는 병거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는 확실히 경건한 자이었다. 그는 당시에 구입하기 어려웠을 성경책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아마 비싼 값을 주고 샀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병거를 타고 먼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길이 좋지 않아 병거를 타고 가며 책을 읽는 것은 많이 흔들리고 불편하였을 터인데도 그는 성경을 읽었다. 버스나 전철이나 차를 타

고 가며 성경을 읽는 것이나 듣는 것 이상이었다. 그는 성경말씀을 사랑하는 자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야 한다. 오늘날 좋은 여건 속에서도 성경을 힘써 읽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사랑하여 버스나 전철이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책을 읽거나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9-30절〕 성령이[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성령께서는 빌립더러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감동하셔서 전도자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신다. 빌립은 그 병거에 가까이 달려갔다. 그것은 그가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에 즉시, 즐거이 순종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한다. 전도자는 낯선 사람에게라도 접근하여 말을 걸어야 한다. 빌립은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말하였다.

〔31-34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귀절[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말씀하기를] **저가 사지(死地)**[도살장]**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게 하며 그가 읽는 성경구절에 대해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구절은 이사야 53:7-8의 말씀이었다. “저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는 빌립에게 물었다.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가 빌립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 그는 성경 내용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이 그의 마음 속에서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그의 진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이 표현은 그 동안 빌립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잠잠했음을 보이는 것 같다. 전도자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말해야 한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에 익숙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었음을 보여준다. 빌립은 성경에 상당히 익숙했다고 보인다. 오늘날 우리도 바쁜 날들 속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고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한다.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그것이 전도이다. 전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류의 구주, 곧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36-40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17] 이에 명하여 병거를

---

17) 옛날 영어성경(KJV)에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헬라어 전통적 다수사본(Byz)과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p^{45} ℵ A B C)과 역본들($vg^{ww\ st}$ syr^{p} $cop^{sa\ bo}$)에는 없고,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님]**의 영이**[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기뻐하며]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다. 그는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 빌립이 구스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먼 곳으로 떠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이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죄사함을 표시하고 확증한다. 본절은 빌립이 그에게 베푼 세례의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빌립이 그를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들이 둘 다 물에 내려간 것은 단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물 속에 담그는 세례 방식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개혁교회는 세례가 물 속에 담그거나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림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께서는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전도는 전도자보다 전도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이며 그것만 영속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또한 성경책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할 것이다.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전도자는 떠나갔지만, 전도를 받은 구스 내시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그는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갔다. 한편,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를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고 있었다.

어떤 초대 교부들(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키푸리안 등)의 인용문들과 어떤 고대 역본들(vg^{cl} cop^{meg} arm)에만 나타난다.

본문은 전도에 관해 몇 가지를 보인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택하신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영혼이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빌립 같은 전도자가 있었다. 또 성령님의 특별한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다. 전도자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다. 구원 얻은 자의 심령에는 기쁨이 있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킬로미터나 되는 먼 곳에서 와서 예배했고 또 돌아가면서 흔들리고 불편했을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구스 내시의 경건을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한다.

둘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얻었음의 표와 확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시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죄사함의 구원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죄가 사람들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며, 죄사함의 구원이 그것의 해결책이다. 물세례는 그것을 표시하고 확증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었고 물세례로 그것을 표시하고 확증하였다. 아직도 죄사함 얻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물세례로 그것을 확증해야 한다.

셋째로, 집사 빌립은 비록 사도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은 전도자이었다. 그는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병거 타고 돌아가며 성경을 읽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였다. 또 그는 그 후에도 아소도와 그 외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 우리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9장: 사울을 부르심

1-30절, 사울을 부르심

후에 바울이라고 불린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 특히 로마에 전파되었다.

〔1-2절〕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殺氣)가 등등하여**[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道)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본래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핍박하던 자이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시 유대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들에 갈 공문을 요청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회는 그 곳의 회당들에도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다. 무지에서 나온(딤전 1:13) 잘못된 열심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죽이는 극히 악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3-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주님], **뉘시오니이까?** [주께서](전통사본)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다. 그것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을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마 10:40).

〔6-9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말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아무도](전통사본)[18]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하니라**[완전히 중단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던 그 3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간이었다.

〔10-12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直街)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19]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살아계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본문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10, 11절). 주께서는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사도 시대에 자신을 계시하신 한 방법이었다.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장소와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지시하셨다.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라는 이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13-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害)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으며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

18) Byz C 등이 그러함.

19) Byz B C $cop^{bo-mss\ meg}$ arm 등에 있음.

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많은 사람에게서 들은 바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울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일일 것이다.

〔15-16절〕 주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원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그릇임이니라].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보일 것임이니라] **하시니.**

아나니아의 불만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처음 명령 그대로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움은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다.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사울에게 가야 할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그가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주의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원수 같은 사울을 택하셨다. 둘째는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해를 받을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과연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말하되]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의 답변은 아나니아에게 충분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다. 그는 주님의 지시대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 또 그는 그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자기를 보내어 그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거했다. 그의 말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주 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8-19a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

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주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고 강건하여졌다. 세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는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었다.

〔19b-22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죽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당황케 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동안 새 친구들이 생겼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친구가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교제이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였고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며 그를 믿지 않았으나, 그는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였다.

〔23-25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그를 담아](전통본문)[20]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20) Byz vg^{cl} syr 등이 그러함.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3년 후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간 그와 함께 유했다고 말했다(갈 1:17-18). 그 3년 중 얼마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자, 제자들은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 내려 피신케 하였다.

〔26-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간 머물렀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갈 1:18-19).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에 대하여 두려움과 거리낌을 가졌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진실히 주를 믿고 따른 자이었다(행 4:36-37). 또 사도행전 11:24는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증거했다. 이런 경건하고 선한 인물이 사울과 사도들 간의 교량 역할이 되었다. 그것은 사도들이 사울을 이해하고 그를 주의 제자로 용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바나바는 믿음의 좋은 친구이었다.

〔28-30절〕 사울이 제자들과[그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배신자가 되었다고 생각

해 격분한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 했다. 형제들은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었다. 나중에 바나바는 그를 다소에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칠 것이다(행 11:25-26).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셨다. 그는 사울을 부르셨다. 또 그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할 것을 지시하셨다. 살아계신 주께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의 크신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심이었다. 그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무지한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셨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 사울을 부르신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님으로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악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꾼도 삼으신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고 완고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인도해야 한다.

둘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후 즉시 전도하였다(19-20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 물론, 사울은 고난도 겪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했다.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겨 죽이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하게 하셨다.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일이며 성도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다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려 할 때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해야 한다.

31-43절,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확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전통본문)[21]**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절은 주후 40년 전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의 형편을 네 마디로 표현하였다. 첫째로, 교회들은 평안하였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은 한 풀 꺾였던 것 같다. 주께서는 교회에 항상 평안을 주신다. 고난 중에도 교회는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한다.

둘째로, 교회들은 든든히 서 가고 있었다. '든든히 서 간다'는 원어(오이코도메오 οἰκοδομέω)는 '집을 세운다, 증진시킨다, 성장시킨다'는 뜻이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건립과 성장 즉 성화(聖化)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고 의와 선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셋째로, 교회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들이 건전하게 진행하며 발전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만, 또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또 이런 순종하는 교회들에는 항상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넷째로, 교회들의 수는 더 많아졌다. 교인들의 수도 점점 많아졌고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들의 수도 그러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전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효력과 결실이 나타날 것이다.

---

21) Byz cop^{bo-mss} 등이 그러함.

〔32-33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팔년이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었 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5 킬로미터쯤에 있었다.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본서에서 믿는 자를 '형제,' '제자,' '믿는 자,' '성도' 등의 말로 표현하였다. '성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자주 사용한 명칭이다. 많은 기적들 중에 일부만 기록한 성경이 룻다에서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놀랍기도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욥바와 가이사랴에서의 사건들에 연관되기 때문인 것 같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라 하는 성도를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자이었다. 예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 받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애니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즈음 병상에 눕기 시작한 듯하다. 그는 그에게 병 고침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병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34절〕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예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도들을 통해 능력의 일들을 이루셨다.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행 2:43; 5:12). 기적은 사도들의 신분증과 같았다(고후 12:12).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들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에도 기적들을 계속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구원 얻어 죄를 떠난 거룩하고 선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본문의 말씀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병 고침의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다.

〔36-37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영양(羚羊, gazelle)이라는 뜻)**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선행과 구제는 참된 경건의 표이다. 성경의 전체적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선을 베풀라는 것이다. 요한일서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욥바에 사는 경건하고 착한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고 그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서의 안식과 장차 몸의 복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다.

〔38-39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웠다. 룻다에서 서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도시가 욥바이다.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말고

빨리 와 달라고 간청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나이 40세쯤 되었을 사람이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과 권위를 주셨다. 그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갔다. 모든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 옷들은 이웃들을 위해 지은 것들일 것이다. 그것들은 다비다의 선행의 증거들이었다고 보인다. 모든 과부들의 눈물과 그들이 보여준 그 옷들은 다비다가 어떻게 진실하고 선한 성도이었는지를 잘 증거했다고 본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말하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해야지 사람 앞에 하듯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뢰는 것이어야 한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5:14-16,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役事)하는 힘이 많으니라." 베드로는 기도를 마친 후에 돌이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자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았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를 일으켰고 살렸다.

〔41-43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

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무두장이]**의 집에서 유하니라.**

다비다를 살린 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은 베드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했고 든든히 서 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해 수가 더 많아졌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해 수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또 주님을 진실히 믿고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몸의 건강과 경제의 안정과 환경적 평안도 약속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적 교훈을 들음으로써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또 그 교훈을 실천함으로 든든히 서야 하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며 구원 얻는 자가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주께서는 살아계셔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낫게 하셨고 죽은 여성도 다비다를 살려주셨다. 주께서는 옛날에 기적으로 활동하셨으나 오늘날에는 성경말씀을 통해 활동하신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의약적 치료를 구하며 감사히 사용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활동하신다. 그는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시며 구원 얻을 자마다 주 예수께로 돌아오며 그를 믿고 따른다. 그는 특히 성경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성경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성경말씀 앞으로 초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성경책을 전하며 성경강해와 책자들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며 스마트폰에서 교회홈페이지와 인터넷 주소를 소개해야 한다.

10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됨

〔1-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대(隊)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말하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말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그가](원문) **가로되**[말하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무두장이, 제혁업자]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약 50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이었다. 그 도시는 헤롯 왕과 로마 총독들의 공식적 거주지이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군인이며 이탈리야 대(隊)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오늘날 중대장쯤 된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주셨고 고넬료는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지시한 대로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하였다.

〔9-16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정오)**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

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말하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니라.**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먹는 음식을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율법의 규례대로(레 11장; 신 14장) 언제나 정결한 생물들만 먹고 부정한 생물들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환상 중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새를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 모든 택한 자들을 깨끗케 하셨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간에 모든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됨을 얻었다.

〔17-22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사람들](전통사본)[22]**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말하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신다.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은 고넬료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했다. 첫째로, 그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증거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지만,

---

22) Byz^{pt} D it^{d} 등이 그러함.

고넬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애썼고 그의 구제와 선행은 그의 의를 증거했다. 둘째로, 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악을 떠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셋째로, 그들은 고넬료가 모든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했다. 신앙은 말보다 그의 인품을 통해 증거되고 성도의 인품은 주위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 잘 증거될 것이다.

〔23-26절〕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전통사본에는 없음)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티네스 τινες)[몇 명의]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말하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약 50킬로미터의 길은 하루에 이동하기에는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에나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크게 여겼고 또 친척들과 친구들을 사랑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없다. 비록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행위는 지나쳤지만, 그것은 고넬료의 겸손한 인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사모함과 말씀 전달자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27-33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말하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말하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금식하며](전통본문)[23] **내 집에서 제9시**(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

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전통본문)[24]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하나님께서](전통본문)[25]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위법'이라는 말은 이런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곳에 왔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접촉하게 되고 그에게 전도하여 그를 구원하는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이루어졌다. 고넬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

〔34-41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께서]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화목]**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께서] **함께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

23) Byz p^{50} D it^{d} syr^{p} cop^{sa} 등에 있음.

24) Byz C it^{d} syr^{p} cop^{sa} arm 등에 있음.

25) Byz D it^{d} syr^{p} cop^{sa} 등이 그러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일들이었다. 그의 병고침과 기적들은 그의 신성(神性)을 증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은 그의 부활이었다.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확증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자신의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40일이나 보여주셨다(행 1:3).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하였다.

〔42-48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바로 그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성령님의 선물]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받으라](원문)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고 모든 심판을 맡기신 자이시다(요 5:22).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와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죄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근본

적 문제이므로 죄사함의 문제는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 베드로는 이처럼 복음의 요점인 죄사함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님의 내려오심은 그들을 구원하신 표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그들이 물세례를 받음은 합당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다(전 12:13). 우리는 고넬료처럼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며 선행과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둘째로,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경건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를 힘썼다.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일은 결코 나 혼자만 할 일이 아니다. 구원은 개인적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누릴 귀한 보배이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가족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주이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구원해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 또 우리의 무거운 죗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과 죽음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피할 것이다.

11장: 안디옥 교회의 설립

〔1-12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그와 다투어] **가로되**[말하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말하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말하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말하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또 보라, 바로 그때에] (원문, KJV, NASB)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고(마 28:19) 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었으나(행 1:8), 그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기대나 소원이 없었고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유대인의 완고한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생각이 어두웠고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함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도적 권위로나 사도들의 대표자의 권위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동료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 그 동안 되어진 상황을 차례대로 차근히 설명하였다. 그는 후에 그의 서신에서 장로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교훈하였다(벧전 5:3).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했다. 그 환상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임을 나타내었다. 그가 환상을 본 직후에 세 사람이 그가 우거한 집에 찾아 왔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으며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다. 베드로는 욥바의 여섯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 그 여섯 형제들은 베드로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이와 같이,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13-17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께서]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했다.

하나님께서 믿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말하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시끄럽던 교회는 잠잠해졌다. 다툼은 제거되었다. 온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고 성령님을 받게 하셨고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다. 사도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또 서로간의 일시적 다툼은 사라졌다. 교회는 평온을 되찾았다. 온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교회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이상적이다. 교회 안에는 때때로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때에도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된 생각과 이해를 위해 겸손히 인내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같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교회의 중요한 한 속성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치단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9-21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헬라파 유대인들](전통사본)[26]**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26) Byz B 등이 그러하며 it vg syr cop 등도 그런 뜻을 가질 수 있음.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 속에서 쇠잔해지지 않고 도리어 확장되었다. 제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롬 8:28).

흩어진 제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헬라인'이라는 본문의 전통본문(헬레니스테스 Ἑλληνιστής)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로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헬라인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하실 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시 3:8). 구원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22-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그 곳에서 가까운 구브로 섬 출신이었다(행 4:36). 그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다. 신앙생활은 신자 편에서의 진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로써 하나

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그를 따라야 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었다. 그는 거기에 파송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바나바의 사역은 믿은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였다.

〔25-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사울이 있었던 다소로 가서 그를 찾아 만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일년간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고 믿음과 인격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성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다(엡 4:11-12).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 가르친 사역이 후에 그들을 그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한 계기가 되었다.

〔27-30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扶助)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 참 선지자이었다.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 글라우디오는 주후 41-54년에 통치했던 로마 황제이었다. 안디옥 교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즉 선행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 얻은 후 선하게 사는 것이다(엡 2:10; 딛 2:14; 갈 6:10). 성도들의 선행과 구제의 실천은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엡 2:8-9; 딤후 1:9).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롬 1:16; 3:29-30).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둘째로, 바나바는 믿는 모두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친근히 하며 꼭 붙들라고 교훈하였다. 신명기 1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꼭 붙들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5:4-5).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 사도행전 14:22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환난 중에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였다. 구원 얻은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한다.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6:17-18,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2장: 헤롯의 핍박과 죽음

〔1-4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 1세로서 주후 37년부터 44년까지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였다고 한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사도 야고보는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 헤롯 왕에 의해 죽임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이렇게 일찍 순교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의 뜻을 거스르며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핍박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를 대적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악한 통치자는 의와 선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만 본다. 그때는 무교절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게 했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려면 고난도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종들이 살아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

로를 구출해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좀더 하게 허락하옵소서.”

개인이나 교회나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마태복음 7:7-8,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특히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 시편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6-10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말하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말하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말하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초소]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죽이려 한 그 전날 밤에 일어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 그것은 역사상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건일 경우에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적을 통해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비상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 밤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에게 깊은 잠을 주셨음에 틀림없다. 군사 넷씩인 네 패의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의 일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11-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말하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일생의 길을 작정하셨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큼 산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순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좀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작정되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합심 기도는 효력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는 단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잠 15:8; 약 4:3).

〔13-16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나 그들의 믿음은 약했다. 그들은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다.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며 열두 사도들처럼 인정을 받은 자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서에서 그를 사도적 인물로 여겼고 그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하며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언급하였다(갈 1:19; 2:9).

〔18-19절〕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군사들은 베드로의 기적적 구출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헤롯은 그를 찾아도 볼 수 없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했다. 헤롯은 잔인하였다. 그는 죄 없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이제 파수꾼들도 죽였다. 파수꾼들은 그 밤에 깨어 있지 못했고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가치나 그의 죽음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죽음에 이르나 어떤 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작정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20-23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보좌]에 앉아 백성을 효유(曉諭)한대[연설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님]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악행을 갚으셨다. '충'이라는 말은 '벌레'라는 뜻으로 무서운 병균을 가리킬 것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에 의해 각종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한다. 천사가 헤롯 왕을 친 까닭은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롯 왕은 교만하였고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섬길 줄도 몰랐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크고 왕성하였고 구원의 일과 결실은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일이 쇠잔하지 않고 왕성케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었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扶助)[봉사]**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라는 원문은 두 가지 본문이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영어성경들과 한글번역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이다.[27] 그러나 전통적 헬라어 다수사본은 '예루살렘으로'이다.[28]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봉사의 일을 마쳤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동반자로 취하였더라."[29]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려움과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안디옥 교회가 보낸 구제의 일을 완수하였다는 뜻이다. 전통적 헬라어 다수사본의 본문이 원본의 본문일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한 가난과 두려운 핍박 속에서 그 구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도움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초대교회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

27) 전치사 에크 ἐκ나 아포 ἀπό가 사용되었다. TR A D vg (syr^{p}) cop$^{sa-mss\ meg\ bo}$ 등이 그러함. KJV NASB NIV 등이 그 본문을 택함.

28) 전치사 에이스 εἰς가 사용되었다. Byz ℵ B cop$^{sa-ms\ meg}$ 등이 그러함. Majority Text^{2} UBS^{4} Nestle^{27} 등이 그 본문을 택함.

29) '마쳤다,' '취하였다'는 원어는 단순과거(aorist) 분사이며, 과거분사는 보통 본동사보다 이전의 행위를 나타내지만 사도행전을 포함한 많은 구절들에서 동시적 행위도 나타내므로 이런 번역이 가능하다.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p. 1113.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였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순교의 길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고난과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 마태복음 16: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께서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그가 기적적으로 놓임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하셨었다(민 11:23).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7:7).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낙망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러하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셋째로, 악한 헤롯 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벌레가 먹어 죽었다. 시편 1:6,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7:11-12,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행을 징벌하신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다. 선한 삶은 구원 얻은 성도의 구원의 증거이며 열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13장: 최초의 선교사

1-12절, 최초의 선교사 파송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헤롯과 함께 자랐던](KJV, NASB, NIV)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자들이었을 것이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께서는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했다(엡 4:11-12).

교회에는 성경에 정통한 목사들과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의 양성도 필요하다. 목사들과 교사들은 성경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며 충성하는 자이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했고, 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석]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교훈하였다(딤후 2:1-2, 15).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고난을 각오하며 주를 따라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마 16:24),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

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딤후 2:3-4).

〔2-3절〕 [그들이] **주**[님]**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본문이 그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지 말하지 않으나, 그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을 것이다. 본문은 금식이라는 말을 두 번 언급한다. 금식은 기도의 간절한 형태이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할 것을 지시하셨다. 그는 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지시하셨을 것이다. 사도 시대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간절한 기도로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지교회의 유익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세계복음화도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막 1:38),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9:37-38). 또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

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8:18-20; 막 16:15).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탁했다. 안수는 직무를 위탁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일을 시작한 교회가 되었다. 그 일은 성령님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주께서는 자신이 친히 신약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18,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었다(슥 4:6).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건립은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8,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4-5절〕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신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이다(행 4:36).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전도는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부끄러워 말고 또 우리의 부족과 무능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해야 한다.

바나바와 사울이 수종자로 둔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고(행

12:25) 바나바의 사촌이다(골 4:10).[30] 전도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동역자와 수종자가 필요하다. 주께서도 친히 제자들을 불러 전도의 일에 참여케 하셨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을 위해 신실한 동역자들과 수종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6-12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31]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마술사]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말하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義)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하나님의 바른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그들을 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큰 죄악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있다. 선교 활동에는 언제나 난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다. 디모데후서 1:7-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님의 증거와 또

---

30) '생질'이라는 원어(아넵시오스 ἀνέψιος)의 뜻은 '사촌'이다.

31) '총독'이라는 말(안뒤파토스 ἀνθύπατος)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이 관할하는 도(道, province)들을 다스리는 총독(proconsul)을 가리킨다.

는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4:3-5,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큰 담력을 얻었다. 그가 바예수에게 말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전도에 난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큰 능력으로 일하셨다. 마술사를 벌하신 일도 그러하였지만, 그보다 로마 제국의 한 총독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자를 부르시며 훈련시키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를 파송게 하시고 후원케 하신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금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스가랴 4:6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고 자신의 영 곧 성령님으로 건립된다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오늘날도 전도와 교회 건립은 기도와 금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전도 활동에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에는 마술사 바예수의 방해와 대적이 있었다. 사탄과 악령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잘 대처해야 한다.

13-52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13-15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묻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요한은 사명감과 인내심이 부족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들은 바울 일행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요청했고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었다.

〔16-20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약 450년간)[32]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는 자들을 통틀어 말한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는 그들이 광야 40년간 많은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다. 가나안 족속들의 심한 우상숭배와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 시대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이었다.

---

32) 전통사본에는 450년이라는 말이 20절의 '그 후에'라는 말 후에 있다.

〔21-23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라**[구원을 주셨도다](전통사본).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4-31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 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께서] **있으니**[계시니] **나는 그 발의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너희에게](전통본문)[33] **보내셨거늘** [이는](원문, KJV, NASB)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읽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하였음이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33) Byz p^{45} C vg syr^{p} cop^{bo} arm 등이 그러함.

들이 메시아를 정죄한 것은 지극히 큰 악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 예언을 이룬 것이었다(사 53:3-6).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들은 이제 그의 증인들이다. 그들의 증언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은 증인들의 증언들인 신약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전달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32-41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께서] **예수**[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그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전통본문)(KJV, NIV)[34]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확실한 자비](KJV)**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바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과 다윗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그 구주는 몸이 썩지 않으실 것을

34) Byz syr^{p} cop^{sa} arm 등이 그러함.

약속하셨다(시 2:7; 사 55:3; 시 16:10).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고 그 몸이 썩었으나,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몸이 썩지 않으셨다.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요점을 전했다. 복음의 요점은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이며 구원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다. 죄가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었으므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영생의 길이 된다.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이다.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그들 속에 있을지도 모를 불신앙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복음은 값싼 구원을 주는 소식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떤 이에게는 멸망이 됨을 증거하셨다(요 3:17-21).

〔42-49절〕 저희가 [유대인의 회당에서](전통사본) **나갈새 사람들이**[이방인들이](전통사본)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그들이](원문)[35]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

---

35) 사도행전 13:43; 14:1, 3, 5, 26의 '두 사도'라는 원문은 단순히 '그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4:4, 14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도들'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바나바가 사도라고 불린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주님의]36)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테타그메노이 τεταγμένοι)(완료시제)**는 다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의 전도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義)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권면이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성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갈급함을 갖게 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었다.

유대인들의 나쁜 반응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한 태도를 가졌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너무 낙심할 것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증거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다른 전도 대상을 찾아 나서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요 증거이다.

〔50-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계속] **충만하니라**(에플레룬토 ἐπληροῦντο)(미완료 과거시제).

악한 자들은 혼자서는 용감하게 행치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악을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도자들은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은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림으로

36) Byz p^{45} ℵ A C it^{d} vg cop^{sa-mss} arm 등이 그러함.

교제의 선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그 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계속 충만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들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구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는 오셔서 죽을 죄를 짓지 않으셨으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한 증인들이었고 그들의 증언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요점이 그것이다.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이 이것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히 증거되어 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이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길은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 원인은 죄이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늙고 병약하고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거룩하고 선한 새 삶을 산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저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지한 자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며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이 복음을 믿을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함

〔1-3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그들이](원문)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그들이](원문)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킬로미터 동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그들은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거기에서 그들의 전도는 결실을 맺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곧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과 두 부류가 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그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악인들은 자신들만 악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선동하여 악하게 만든다. 그것이 악의 본성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래 머물며 담대히 전도하였다. 전도자들에게는 핍박 중에도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과 담력을 주셨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들과 동행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특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사도 시대에는 기적들이 널리 나타났다. 기적은 특히 사도들을 통해 많이 행해졌다(행 2:43; 5:12). 오늘날

에도 살아계신 주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기적들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신다. 주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복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4-7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그 사도들을](원문)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그들을](원문) **능욕하며**[학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에서 본장 4절과 1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도들'이라고 불리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열두 사도들과 바울 외의 사람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특별한 경우이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유대인들을 좇는 자도 있고 그 사도들을 좇는 자도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항상 그런 현상이 생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는 것이다. 그 성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치려 함을 알고 그 곳을 피했다. 주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0:23).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여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의 전도 여정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으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니 쉬지 않았다.

〔8-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

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 앉은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롬 10:17). 그는 그 믿음으로 그의 병든 몸까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

〔11-13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말하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Δία)(Δίς = Ζεύς의 목적격)[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Ἑρμῆν)**라 하더라. 성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花冠)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관(花冠)들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그들에게 제사하고자 했다. 참 신앙은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복음은 바른 지식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복음을 확증하는 데 필요할 뿐이다. 복음이 없는 기적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14-15절〕 두 사도[그 사도들](원문)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말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마타이아 μάταια)(우상숭배)**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과 같은 성정(性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지식과 능력이 유한하고 심신이 연약하고 또 심령이 죄악되다. 그들은 또 그들에게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들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전도는 사람이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16-18절〕 하나님이[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들이 죄악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내버려두셨으나, 이제는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느꼈고 찾고 사모했고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하늘을 향해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회개했고 또 천명(天命)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려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려는 것을 겨우 말렸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招引)[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치니라.

약 120킬로미터가 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끌어 내쳤다. 바울은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돌에 맞았다.

〔20-22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은 수가 적고 힘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바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다시 힘을 내어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9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바울은 그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가 전도하는 길에 고난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도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전도자들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을 위로격려하고 권면하는 일도 필요하다. 바울은 이미 믿은 자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였다. 이미 믿은 자들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이다.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의와 평안과 영광의 나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며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성도의 세상 생활의 한 특징은 고난이다. 고난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도 올 것이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도 올 것이다.

〔23-28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말씀]**를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의**[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택한다'는 원어(케이로토네오 χειροτονέω)는 본래 '손을 내밀다, 투표하여 선출하다'는 뜻을 가진다. 장로들은 바른 지식과 모범으로 교회를 지켜야 할 자들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이다(행 20:28).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택하였다.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한 것은 후대의 교회에 본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세운 장로들을 그들이 믿은 주님께 부탁하였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일차 전도의 목표로 계획하였던 바를 다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이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구원은 그가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가 허락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복음이 전해질 때 믿고 따르는 자도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도 있었으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핍박 중에라도 복음은 결실을 얻었다. 1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우리는 핍박 중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2절).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환난을 각오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해야 한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돌보며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다.

넷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27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결신자들을 많이 얻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자신들의 무익함을 느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셨다.

15장: 예루살렘 회의

〔1-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는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교훈이 중요하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린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신자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뜻이 있다. 그들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런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부른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교리적 논쟁은 필요하다. 그것은 회피할 일이 아니다. 교리적 논쟁은 주로 잘못된 교훈 때문에 생긴다. 잘못된 교훈은 사탄의 끊임없는 활동과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지상 교회 내에서 항상 있을 것이다. 교리적 논쟁은 실상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에서 나온다. 교리적 오류가 있는데도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충성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 할 것이고 교리적 오류를 비평하고 배격하려 할 것이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율법주의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와 지식이 더 나아서라기보다 교회의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지키려 함이었다. 중요한 교훈에서의 이탈과 불일치는 교회의 순결과 일치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교회는 바른 교리에 있어서 하나이어야 한다.

〔3-11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주시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차별치, 구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속죄사역이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처음부터 이해한 진리가 아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교리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그것은 교리적 문제로 모인 최초의 교회 회의이었다. 그 교회 회의에서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리에 대해 계시로 선포하게 하시는 대신에 많은 변론을 통해 깨닫도록 하셨다. 사람들의 무지와 이해력의 부족은 토론을 통해 서서히 극복되었다. 토론을 통한 교리의 점진적 이해는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이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으며 따라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18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奇事)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말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돌아보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하나님께는 그의 모든 일들이 만세 전부터 알려져 있느니라].[37]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었던 야고보는 일어나서 베드로의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였다(암 9:11-12). 그것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멸망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19-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점들만 조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37) Byz (A D) (it^d vg) syr^p Irenaeus 등이 그러함.

내었다. 야고보가 말한 몇 가지 점들이란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둘째로 음행과 셋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이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리킨다(29절). 그것은 우상제물 자체가 죄악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었다(고전 8:9-10; 10:23-28). 음행은 우상숭배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대표적인 죄악이다. 오늘날같이 옛날의 이방 사회는 너무 음란하여서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또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은 채 먹는 고기를 가리킨다. 피는 생명이므로 율법은 피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레 3:17; 7:26-27; 17:10, 14; 19:26 등)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유대인들에게 큰 거리낌이 되었다.

야고보의 제안은 영속적 성격을 가진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어느 시대에나 큰 죄이지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한 교회생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만일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에 금지된 그런 것들을 용납한다면,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마음에 큰 거리낌을 가졌을 것이며 교회생활에서 마음에 상당한 불편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2-29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지도적 인물들인]**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사도들]**와 장로된 형제들**[장로들과 형제들][38]**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38) Byz syr^{p} cop^{bo-mss} arm^{mss} 등이 그러함.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전통본문)[39]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필요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였다. 바울과 원사도들 간에는 아무런 불일치가 없었다. 야고보의 제안으로 그 회의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러 시간의 교리적 변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일치된 좋은 결론을 가져왔다. 그들이 특히 '일치 가결'이라는 단어(호모뒤마돈 ὁμοθυμαδὸν)를 쓴 것은 교회들의 하나 됨을 보여주는 기쁜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교리적 변론은 마침내 사도 시대 교회들의 사상적 일치를 드러내었다. 얼마 동안의 혼란과 심적 고통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약 율법과의 관계에 관해, 바른 깨달음과 생각이 정리되었다.

〔30-35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사도들](전통본문)**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多數)한**[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39) Byz C syr^{p} arm (Irenaeus^{lat}) 등에 있음.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과 격려의 말을 인해 기뻐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 일꾼들을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36-41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하나님의](전통본문)[40]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정의 시작을 증거하며 심방의 필요성도 보여준다. 성도들은 서로 방문하고 위로 권면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히브리서 3:13,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와 심방 동반자 문제로 다투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다(골 4:10). 바나바의 생각은 온건했으나, 바울의 생각은 강경했다. 그들은 심히 다투었고 그 결과 그들은 피차 갈라서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 둘의 신앙 사상이 다른 것은 아니었으나, 사역 방식에 대해 생각이 달랐다.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나뉜 것은 사역자들의 연약을 보이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역(同役)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주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은 생각이 같아야 한다. 아모스 3: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또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

40) Byz p^{45} C vg^{cl} syr^{p} cop^{bo} arm 등이 그러함.

을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고 또 심령이 굳세게 단련된 자이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은 잘못이다(1, 5절). 본문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분명히 증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같이 부족할 뿐이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둔다. 교회 역사상, 죄의 고백, 선행, 구제, 헌금, 십계명 준수 등이 구원의 필수적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율법주의 사상이며 성경에서 이탈한 잘못된 교훈이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노라."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물론, 바르고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상, 즉 반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도 잘못이다. 도덕법을 지키는 바르고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구원 얻은 증거와 열매로서 필요할 뿐이다.

셋째로, 교회는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가져야 한다.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는 일치된 마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26절,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것은 여러 시간의 교리적 변론을 통하여 왔다. 그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필요하며 성경말씀의 묵상과 기도,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교리적 순결과 일치는 교회의 정상적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10,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일치된 바른 교리와 교훈을 가져야 한다.

16장: 빌립보에서 전도함

〔1-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 디모데는 믿음이 진실했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그러했다(딤후 1:3-5). 그는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빌 2:22).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디모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을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린도전서 9:20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 . .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말했다. 영혼 구원의 열정과 지혜와 겸손함을 가진 자만 그렇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이다.

〔4-5절〕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교회들은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했다.

〔6-7절〕 성령이[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땅을 통과하여]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성령께서][41]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에 나오는 지역 이름들은 오늘날 터어키 땅으로 아시아는 그 서쪽 지방을, 무시아는 서북쪽 끝을, 비두니아는 북쪽 지역을 가리킨

41) Byz cop^{sa} arm^{ms} 등이 그러함.

다. 즉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으로 나아가 전도하려 하였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의 걸음을 서쪽의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 곧 유럽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지역의 놀라운 진전이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롬 8:14)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8-10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말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주께서](전통본문)[42]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본문에 '우리가'라는 표현(행 16:10-17; 20:5-21:18; 27:1-28:16 등)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 전도단의 일행이었음을 보인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려 한 것은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환상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눅 16:29, 31).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11-13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기도처가 있곤 했던][43] **문밖**[성밖](전통사본)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첫 성'이라는 말은 '중요한 도시'라는 뜻일 것이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었지만, 빌립보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었

---

42) Byz D syr cop^{sa} 등이 그러함.

43) Byz (ℵ D it^{d} vg syr^{p}) 등이 그러함.

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수도와 동등한 통치제도와 법들과 상당한 특권을 가진 도시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 성에 며칠 머물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나갔다. 그는 성밖 강가의 기도처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전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이다. 주께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14-15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말하되] 만일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경건한 여인이었다. 주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그는 택하시고 구속(救贖)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밤에 세례를 받았다. 만일 그에게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도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가족 세례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풍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가깝다. 먼저 믿은 이가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본을 보이는 것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16-22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利)하게[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

리를 좇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말하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아고라 ἀγορά)[시장, 장터, 광장]**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스트라테고이 στρατηγοί)(행정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점치는 일은 귀신의 활동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호기심으로라도 점을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큰 죄이다(신 18:9-12).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니다. 바울은 기적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전 1:22-24).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고 죄악된 말들과 행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으나 그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핍박했다. 그들은 여종을 단지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위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더욱이,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준 선한 일이 정죄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으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 시장(아고라 ἀγορά)은 당시에 토론이나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벗겼고 매를 맞았다.

〔23-25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令)[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했다. 그 감옥은 춥고 어두웠을 것이며 그들의 온몸은 심히 쑤시고 아팠을 것이다. 그들은 그 밤에 갑갑하고 부자유스런 그 감옥 속 어둡고 찬 바닥에 그렇게 던져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치 않았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았다.

〔26-30절〕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자살]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말하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말하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차꼬가 벗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그 간수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 간수는 평소에 죄책으로 고민하며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자살하려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

〔31-34절〕 가로되[말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44]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

44) Byz C D syr cop^{sa} 등에 있음.

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즉시]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믿는 자는 죄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또 구원은 가정적 구원이다. 가장(家長)의 구원은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이 된다. 그 밤의 바울과 실라의 전도와 설교는 열매를 맺었다.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 세례를 받았다. 한밤중의 세례식과 기쁨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했다. 그것은 고난보다 귀한 일이었다.

〔35-40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衙前)(랍두코스 ῥαβδοῦχος)[하급관리 lictor]**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마 간수는 그 밤의 일을 보고하며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말과 처신은 자신들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당하게 놓여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복음의 진리성을 나타내려 함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위로를 받아야 했을 그들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써 위로를 이미 받았고 그 위로로써 다른 형제들을 위로한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준비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것은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죄인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둘째로, 전도 사역과 교회의 개척과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좋은 동역자를 주셨다. 디모데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한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를 이루는 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그는 또 고난과 기적을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다.

셋째로, 전도자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구원의 열매를 봄으로써 위로와 기쁨도 얻는 길이다. 사도 바울이 부득이 어떤 귀신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준 일이 도리어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으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신기할 뿐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오직 힘써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

17장: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에서 전도함

〔1-3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습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설명하고] 이르되[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께서]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후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각 곳에 회당을 세웠다. 회당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었다. 유대 나라의 멸망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바울의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경건하고 좋은 습관이다. 바울은 회당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세 안식일에 강론했다. '강론하다'는 원어(디아레고마이 διαλέγομαι)는 '조리 있게 말하다'는 뜻이다. 전도자는 복음을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바울은 세 안식일에 계속 강론하였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최선을 다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해야 한다.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짐승 제물의 죽음, 피흘림, 불태움과, 이사야서와 시편의 구절들에 근거한 설명이었을 것이다(사 53:5-6; 시 16:10). 그런 후, 그는 그가 전하는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였다.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자이심이 증거되셨다.

〔4-9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믿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믿지 않는][45] **유대인들은** (**시기하여**)[46]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성읍 관리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말하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保)**[보석금]**를 받고 놓으니라.**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대적하며 소란을 피웠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때 일어나는 분쟁은 불가피하다.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었다(마 10:34).

〔10-12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유게네스 εὐγένης)[마음이 고상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메타 파세스 프로뒤미아스 μετὰ πάσης προθυμίας)[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詳考)**[연구] **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뢰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도피하는 긴 여행을 해야 했다. 그들은 베뢰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베뢰아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닫힌 마음,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소박

45) Byz D 등에 있음.
46) 전통사본에는 없음.

한 마음, 열린 마음, 모든 준비된 마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뢰아에서도 전도에 많은 열매를 주셨다.

〔13-14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때에 사탄의 방해도 계속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의 열심도 컸지만, 악한 자들의 열심도 대단했다. 교회 사역은 영적 전쟁과도 같다. 베뢰아에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다고 기뻐한 것은 잠깐이었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피신해야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었다(마 10:23). 전도자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베뢰아에서 아덴까지는 바닷길로 400 내지 500킬로미터 가야 했다. 바닷길은 항상 풍랑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고후 11:23-27).

〔16-22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시장,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에피큐러스]**와 스도이고**[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혹은 이르되**[말하되] **이 말장이**[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말하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NASB, NIV).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보고 마음에 분노하였다. 그들은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우상숭배는 그런 관심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종교와 철학의 주제들은 비현실적이게 보이지만, 실상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다. 세상과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옛날부터 종교와 철학의 주제이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사람은 최선의 지혜로도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전 1:21).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사람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종교적,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다.

〔24-25절〕 우주와(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범사에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다. 창조주이신 그는 피조세계에 제한되지 않는 자, 곧 초월자이시다. 그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

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시다. 그는 완전하시고 아무 부족이 없으시다. 그는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조물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나, 그의 초월성과 완전성과 충족성을 알지 못하는 신 개념과 그를 섬기는 방식은 큰 잘못이다.

〔26-29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그 안에서](KJV, NASB, NIV) **살며 기동하며**[움직이며] **있느니라**[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거주 환경 속에서 그의 손길을 어느 정도 깨닫게 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실상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현실적이거나 사치스런 무엇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30-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피스티스 πίστις)[믿음]**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또 심판은 사람이 회개해야 할 이유이

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고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의 부활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32-34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과는 크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 수를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전도로 몇 명, 아니, 단 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은 주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하다(마 16:26).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창조자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방신들과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헛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이심을 확증한다.

셋째로, 죄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 밝히 증거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11-12절,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상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18장: 고린도에서 전도함

〔1-3절〕 이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는 고대 헬라의 상업의 중심지이었고 매우 음란했던 도시이었다. 글라우디오는 주후 41-54년경 통치한 로마의 황제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다. 그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에 새로 온 자이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갔는데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했다.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4-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성령님에][47]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강론하다'는 원어(디아레고마이 διαλέγομαι)는 조리 있게 말하다는 뜻이고, '밝히 증거하다'는 원어(디아마르튀로마이 διαμαρτύρομαι)는 '열심히, 엄숙히 증거하다'는 뜻이다. 또 그는 성령님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말씀을 조리 있게 증거해야 하고 또 말씀과 성령님에 붙잡힌 바 되어 열심히 전해야 한다.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훼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

---

47) Byz arm 등이 그러함.

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있었다. 사탄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며 방해한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옷을 떨어버리고 그들과의 단절을 분명히 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었다(마 10:14).

〔7-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님]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상반된 반응을 가져온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은 항상 있는 것이나, 구원의 열매들도 또한 있을 것이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물론 그 자신은 천국에 계시지만, 신성(神性)의 영으로 환상 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환상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충족히 기록되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후시대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교훈이 된다. 오늘날 전도자들은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10-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었다(마 28:20).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주께서 그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또 그 성에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 전도자는 구원의 도구이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전도자는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하고, 택자들을 다 구원해내어야 한다.

〔12-17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주후 51년 혹은 52년경)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말하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모든 헬라인들](전통본문)[48]**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그를 미워하였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였다. 갈리오가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낸 것은 그 일이 도덕적 사건이 아니고 종교적 사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렇게 막으셨다. 순교의 잔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17절은 이방인들이, 소란을 피운

48) Byz D it^{d} syr^{p} cop^{sa} arm 등이 그러함.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하였다는 뜻 같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 그 부부의 이름이 언급될 때 두 번 더(롬 16:3; 딤후 4:19)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앞에 나온다. 그것은 그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성경 지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보이는 것 같다. 그 부부는 바울에게 그를 위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롬 16:3-4).

바울은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하는 기도이다. 바울은 고난과 위험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같다. 머리를 깎는 것은 일정 기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특별히 간구할 때 서원한다. 또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이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는 애게 해 건너편에 있던 도시로서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그에게는 분명히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복음 전도에 대한 불붙는 사명감이 있었다.

〔20-23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말하되] [나는 다가오는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꼭 지켜야 하겠노라. 그러나](전통사본)[49]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

49) Byz D* vg^{mss} syr^{p} 등에 있음.

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항상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의 2차 전도여정이 끝났다. 복음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전해졌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등 중요한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며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 이것이 그의 3차 전도여정이었다. 전도는 씨를 심는 것이고, 심방은 돋아난 싹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도도 필요하고 목회와 심방도 필요하다.

〔24-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로기오스 λόγιος)[구변이 좋고](KJV, NASB)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주님](전통사본)**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애굽의 중심적 도시이었다.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주전 3세기에는 거기에서 구약성경의 헬라어역(70인역, LXX)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아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공부를 하였고 성경을 배웠다.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안 것 같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아굴라와 브리스길라](전통사본)[50]**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道)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더 자세히

50) Byz D syr 등이 그러함.

설명해주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 죄사함 받음과 의롭다 하심 얻음 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지식이었다. 천막 만드는 자인 일반 신자 아굴라 부부라도 성경에 능한 아볼로보다 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 복음의 바른 지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

〔27-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복음의 도를 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 되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그의 기적들과 부활을 통해 확증된다. 그는 나병, 중풍병, 소경, 벙어리, 열병, 손마른 자 등의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야이로의 외동딸, 나이성 과부의 외아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셨다. 그는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둘째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다(행 16:31).

셋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이심을 담대히 전파해야 한다.

19장: 에베소에서 전도함

〔1-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말하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성령께서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했었다(행 18:21). 그는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 어떤 제자들이 믿을 때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고 성령께서 계심도 듣지 못한 것을 알았다. '제자'는 보통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리키지만, 바울이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성령님을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3-5절〕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예수님이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제자들은 확실히 신앙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아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했고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과 같았다(행 8:17).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 다 사도

들을 통하여 새 신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셨다. 그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 신약시대에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는 것은 특권이며 큰 복이다(갈 3:2). 그들의 수는 약 열두 명이었다.

〔8-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믿지 않고](KJV, NIV)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던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삶이다. '강론하다'는 원어(디아레고마이 διαλέγομαι)는 '조리 있게 말하다'는 뜻이고, '권면하다'는 원어(페이도 πείθω)는 '설득하다'는 뜻이다.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말하며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비방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무기력해진다. 교회는, 비록 수가 적어도, 진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목사는 바른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회중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받을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가진다.

바울은 두 해 동안 말씀을 전했다. 두 해 동안은 안식일이 100번 이상이다. 만일 일주일에 두 번씩 전했다면 그는 200번 이상 설교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단순한 어

떤 삶이나 체험이 아니고 바른 진리 사상에 근거한 삶과 체험이다. 2년 동안의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당시 로마의 한 행정구역인 아시아 지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다.

〔11-16절〕 하나님이[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능력들=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악령들)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말하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그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행한 기적들을 통해 그가 전한 말씀이 진리임을 능력으로 증거하셨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표이었다. 히브리서 2:3-4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고 말했다.

〔17-20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 5만은 당시 보통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즉 약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으며 죄악된 일들을 청산했는가를 보여준다. 구원은 회개를 동반한다. 죄의 청산은 회개의 열매이다. 구원 얻은 자들은 죄악된 일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이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힘이 있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행 6:7; 12:24).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다. 전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힘,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行傳)이며 성령님 행전이다.

〔21-22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심령으로](원문) **경영**[계획]**하여 가로되**[말하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로마는 당시 로마제국의 수도이다. 바울은 그 즈음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고 말하였다(고전 16:8-9). 그의 2년 3개월의 에베소 전도 사역은 많은 결실을 맺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道)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그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진리 운동에는 항상 갈등과 싸움이 있다. 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마 10:34). 사람들의 무지함과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으로 인해 이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소동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24-3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은 신주 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말하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

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말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해명, 변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말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 동안이나 하더니.**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내용은 두 가지이었다. 첫째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 때문에 은신주 궤 만드는 그들의 영업만 천해지고 아데미의 전각이 경홀히 여김이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되고 자기들의 유족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은 신주 궤 만드는 일이 바울의 말 때문에 쇠잔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소득 감소의 위험, 즉 그들의 이익 문제가 선동의 한 중요한 동기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에 손실이 되면 싸우려 한다.

에베소 성의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였다. 그의 말은 군중을 분노케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소동은 확실히 감정적이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도 태반이나 있었다. 군중 심리는 항상 그런 것 같다.

〔35-41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안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쓰스**[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

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훼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합법적 모임]**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騷擾)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은 무리들을 안정시키며 그들이 전각의 물건을 훔쳤거나 아데미 여신을 직접 비방하지 않은 자를 잡아온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송사할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이며 이 불법 집회에 대해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석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고 또 거기서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 오늘날도 설교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모든 성도도 담대히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증거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둘째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을 비방하였고 또 그의 전도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으나 서기장의 중재로 그 소요가 진정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늘 예상해야 하고 그때 낙심치 말아야 한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일이 있었고 마술사들의 회개가 있었다. 신약교회에서 기적이나 병고침 등은 사도시대 이후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이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다. 우리는 사람의 철학이나 기적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한다(고전 1:21-25).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함

〔1-2절〕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전통사본에는 없음) **작별하고**(아스파조마이 ἀσπάζομαι)[인사하며 포옹하고](Thayer)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이 있는 지역이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고린도 성이 있는 곳이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였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 신자들을 권면하였다. 권면은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3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하나님의 종들은 사탄과 악한 자들의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핍박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것도 좋다.

〔4-6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전통사본에는 없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아마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인 실라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있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 전도단은 바울을 포함해 적어도 열 명이었다고 보인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방의 항구이었다.

〔7-8절〕 **안식 후 첫날에**[주간의 첫날에](원문) **우리가**[제자들이](전통사본)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사도 시대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공적 모임을 가졌음을 보인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시대의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변경되고 있었다.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완성되었고(골 2:16-17),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부활의 날인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기 시작하였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지게 되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깊은 잠에 떨어졌는데](원문)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樓)**[다락]**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강론된 시간에 큰 시험이 생겼다. 그것은 믿음 없는 한 청년에 의해 일어났다. 그는 귀한 사도의 설교 시간에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삼층 다락에서 떨어진 자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잠자는 젊은이 때문에 그의 성경 강론을 줄이지 않았다.

〔10-12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젊은이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 설교를 마치고 날이 새기까지 그들과 이야기한 후에 그 곳을 떠났다. 제자들 속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13-16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트로길리움에 머물고](전통사본)[51]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통과하여]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

---

51) Byz D it^{d} syr^{p} (cop^{sa}) 등에 있음.

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17-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52]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 증거하였다. 특히 그가 전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회개와 믿음을 전한 것이었다. 참 믿음은 죄를 회개함을 전제하며 그것을 동반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오늘날도 교회가 전해야 할 내용이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22-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전통사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디아코니아 διακονία)[직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마치도록]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심령에서 나온 굳은 결심 때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는 죽을 각오로 복음사역에 임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52)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지도상으로 약 50킬로미터는 넘어보인다.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9:23-24). 바울의 사역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본이 된다.

〔25-27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악인들에게 경고해야 할 직무를 다했는데도 악인들이 회개치 않고 멸망하면, 그가 그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28절〕 [그러므로](전통사본)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주 하나님께서](전통사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그의 핏값은 계산할 수 없이 크다. 여기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그가 보화로 여기시는 성도들의 가치의 큼이 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이다.

또 장로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구원 얻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감독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에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며 심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말씀의 바른 지식과 믿음과, 바른 인격과 삶을 소유해야 한다. 그들은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들을 잘 돌아볼 수 있다. 자신들이 범죄하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다(벧전 5:3).

〔29-30절〕 [이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앎이니라].

장로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는 특히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며 양들을 타락시키며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즉 성경적 설교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달되어 온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를 잘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였다(딤후 1:13-14).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즉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개혁신학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탄의 활동으로 교회가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우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였고 눈물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제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한다. 바울은 모범적인 사역자이었다. 오늘날 목사들도 바울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것이다.

〔32절〕 [형제들아](전통사본)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하나님과][53]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은 그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한

53) Byz ℵ A C D vg syr^{p} cop^{sa-mss} arm 등이 그러함.

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는 가장 좋은 교사시요 권면자시요 책망자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의탁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책이다. 또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말씀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우리로 거룩케 하심을 입은 자들의 회, 즉 현재 참 교회와 미래에 영광의 천국에 속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33-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기억하도록 하였노라].

바울은 물질적 탐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 그는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일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당하였다. 그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본을 보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궁핍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려 했다. 주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6:38). 우리는 물질적 탐심을 버리고 일해야 한다.

〔36-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그 곳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피차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장은 전도자들에게 교훈이 된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밤 늦도록 말씀을 강론했다. 또 그는 모든 겸손

과 눈물로 사역하였다.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 그는 특히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또 그는 죽음을 각오하며 일했다.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겸손과 헌신과 충성을 본받아야 한다.

둘째로, 본장은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교훈이 된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성령께서 목양자와 감독자로 세우셔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게 하신 그 엄숙한 직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특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사도적 교훈 곧 신약성경의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해야 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 진리만 의지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를 지켜 주실 것이며 또 신구약성경과 복음 진리는 그들과 그들이 맡은 교회를 지켜 줄 것이다. 또 그들은 이 세상의 헛된 물질적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본장은 교인들에게도 교훈이 된다. 교인들은 무엇보다 복음 신앙에 굳게 서야 한다. 복음 신앙이란 하나님 없이 살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속죄만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속죄신앙이며 구원 신앙이다. 또 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본받아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성경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한다. 또 우리는 이단사설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또 우리는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해결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힘

〔1-6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두로에 상륙했다. 그는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7일간 머물렀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다.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것을 예감하면서 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7일을 지난 후 그 곳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떠나갈 때에 그들이 다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의 평안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 방문과 그 곳에서의 안전과 계속되는 그의 전도사역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교제일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의 교제이다.

〔7-9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과 함께한 자들은](전통사본)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우리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와 봉사의 일을 위해 세웠던 일곱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다(행 6장).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기도 하였다(행 8장). 그에게는 예언하는 네 딸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남자를 세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삼으셨고 신약시대에도 남자를 사도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셨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훈하셨지만(고전 14:34-38; 딤전 2:11-14), 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자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구약시대에 미리암과 드보라가 그러하였고, 신약시대에 빌립의 딸들이 그러하였다.

〔10-11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 외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 선지자 아가보도 그 중의 하나이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성령님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다”고 말했었다(행 20:23).

〔12-14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그들의 권함은 진지하였고 간곡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바울의 결심은

확고하였다.[54] 그는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 것은, 예루살렘을 사모한 이유 외에도,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더 이상 그가 전도할 곳이 없었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로마와 서바나[스페인]까지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인 것 같다(행 19:21; 롬 15:23-26). 당시에 로마와 스페인은 땅끝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고 그 곳에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15-19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짐]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일행과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였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서(갈 1:19)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특히 야고보에게 문안한 것은 좋은 본이 된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해야 한다. 성도의 교제는 항상 즐겁고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

54)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주후 49년경) 이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것 같다. 그는 제2차 전도여정(51년경)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했고, 제3차 전도여정(53년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과 특히 에베소에서 전도했고 그 후 마게도냐와 아가야(헬라) 지방을 거쳐 밀레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던 것이다.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것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의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바울은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셨고 이루셨다고 말했다. 그렇다. 전도자들의 사역은 순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 명의 죄인도 구원할 수 없으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20-22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주께](전통사본)[55]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말하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관습]**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고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들으므로 무리가 필연 모이리니](전통본문)[56].

바울의 전도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주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최선의 봉사라 할지라도 그 봉사의 결과로 인한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가지 근심된 일을 말하였다.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의 문제이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수만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또 빈번히 잘못되기 일쑤이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습을 지키

55) Byz D vg^{mss} cop^{sa} 등이 그러함.
56) Byz ℵ A D it^{d} vg 등이 그러함.

지 말라고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바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 것이 분명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예견되는 일이었다.

〔23-26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정결의식]**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님]**를 믿는**[믿은]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피할 것 외에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도록](전통사본)[57]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정결의식]**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정결의식]**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로 정결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가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그 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해 제사 드릴 때까지의 그 의식의 만기된 것을 고하였다. 사도시대에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단지 네 가지만 조심하도록 결의하였었다.

〔27-30절〕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

57) Byz C D it^{d} arm 등이 그러함.

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해치려 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거짓되고 악한 비난과 선동의 말이 나왔다.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어떤 선동하는 말에 바른 생각과 판단 없이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31-32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은 잡혀죽을 위험에 처했으나, 치안을 맡은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소동의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온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심으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33-36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폭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은 두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고 사람들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갔다. 이것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이다.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실 때도 그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다. 그는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정하신 때에 나타날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37-40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말하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암살자들]**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말하되].

바울은 자신을 결박하여 끌고가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시간을 요청하였다. 바울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자이었다. 그는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층대 위에 서서 무리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였다.

바울은 두로에서도(4절) 또 가이사랴에서도(10-1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간곡한 권면을 받았었으나 그의 각오는 견고했다.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혔고(27, 30절), 무리들은 그를 폭행했고 죽이고 없이하려고 했다(31, 32, 35, 36절).

주 예수께서는 '나를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고(마 5:11),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마 10:28),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25).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며 영생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과 죽음도 각오하며 따라가야 한다.

22장: 무리들 앞에서 증거함

〔1-3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말하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났으나]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교육을 받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바울은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그들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었던 자라고 말하였다. 가말리엘은 당시의 율법학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었다(행 5:34). 이와 같이 바울은 경건한 보수적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가 배운 율법의 지식대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단순히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필요하였다.

〔4-5절〕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장로들의 회]**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열심이 있었으나 그것이 잘못된 데 사용되었다. 그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 결박해 옥에 넘기는 일을 했고 예수님 믿는 도를 박멸하려 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리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죽였을 때 증인들은 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었다(행 7:58).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행 8:3), 주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를 드러내었다(행 9:1). 그는 심지어

멀리 다메섹 성에까지 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와 형벌을 받게 하려 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 잔해[파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遺傳)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라고 했다(갈 1:13-14).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6-8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다. 홀연히 하늘에서 비추인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곧 그의 신성(神性)의 광채이었다. 요한계시록 21:23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양의 빛 때문에 해나 달의 비췸이 쓸데없다고 증거되었다. 사울은 그 광채 앞에 엎드러졌다. 나사렛 예수님, 즉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30여년간 세상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가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키셨던 것이다.

〔9-11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전통사본—Byz D cop^{sa} 등)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말하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말하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9:7은 "같이 가던 사람

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고 증거한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비친 큰 빛은 보았으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어떤 음성과 소리는 들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다.

주께서는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다. '정한 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만세 전에 작정하신 바를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끝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고 때가 될 때 다 이루신다. 이사야 46: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작정자이시며 주권적 섭리자, 통치자이시다. 그 큰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핍박자를 한 순간에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서는 아무도 이런 핍박자 사울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12-16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말하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시력의 회복을 얻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된 것이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렸다. 아나니아

는 또 그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말하였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되었지만 다른 기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는 오히려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온 바른 진리이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이었다.

〔17-21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꿈인지 생시인지 간에] **보매 주께서**[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님]**의 증인**(마르튀스 μάρτυς)[혹은 '순교자'(KJV, NIV)]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말씀하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은 때때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상태에 있었고 바울도 그러했다.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오늘날도 신성(神性)의 영으로 활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꿈인지 생시인지 간에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에게 유대인 동족들이 그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고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

을 때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을 찬성했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음을 주께 고백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의 사도들을 거절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롬 10:2-3).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사도이었던 것같이, 바울은 무할례자들의 사도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다(롬 15:16; 엡 3:7-8; 딤전 2:7; 딤후 4:17).

〔22-23절〕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말하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당시의 상황은 살벌했다. 그들의 무지함은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살해하려는 데까지 나아갔다. 사형시킬 큰 죄인도 그의 죄를 확정하지 않고 죽여서는 안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구약성경에 사형을 집행할 죄에 대한 규정이 있고 특히 이단자들에 대해 그러하지만(신 13장), 그런 경우에도 그 죄에 대해 두세 증인들에 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큰 죄인지를 확증한 후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계시와 환상을 증거한 바울을 죽이려 했다. 그들은 단지 무지와 오해와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였고 무리를 선동하였던 것이다.

〔24-30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말하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말하되] **어찌하려 하느뇨?**[행하는 바를 조심하소서](전통사본--Byz D vg^{ms} cop^{sa} 등)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말하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할 때 바울은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바울은 채찍과 학대를 받을 위험 중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하였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시민권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행 16:37-39).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었다. 특히 그들은 재판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를 건져내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일반적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과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고 이 경우에 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그가 너무 부당한 학대와 채찍질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다. 그는 또 바울의 성경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여러 권의 서신들을 쓰게 하셨고 또 쓰게 하실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u>첫째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삼일</u>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 성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켜 자기의 증인과 일꾼을 삼으셨다. 그는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그는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는 오늘날 보통 신구약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울은 그가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신 것을 믿었다.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이다.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죄인이 아니셨다. 그는 의인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증거하였다(고후 5:21).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죄씻음 받음을 확증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롬 3:21-24) 구원을 얻어야 한다(엡 2:8).

셋째로, 주 예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불러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오늘날도 그는 죄인들을 불러 복음전도자도 되게 하신다. 그는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벧전 2:9).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

23장: 공회 앞에서 증거함

〔1-3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말하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회 앞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하였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숨은 죄가 있으면 양심을 거스르게 되지만,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평소에 모든 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나,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말했다.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속으로는 불의하면서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외식자를 가리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외식자들의 외식과 숨겨진 불의와 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4-5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는 법을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사람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아야 하는 까닭은 사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이다. 어느 단체나 사회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그 단체나 사회를 혼란시키고 파괴시키는 악이다. 건설적인 조언은 선한 것이지만, 파괴적인 비방은 악한 것이

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세상의 이웃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6-8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말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파는 신앙사상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고, 사두개파는 자유적인 입장을 가졌다.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부정했으나 바리새파는 그것들을 다 인정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바리새파가 옳았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 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바로 알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행 2:36; 17:31; 롬 1:4). 바울의 말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다.

〔9-10절〕 크게 훤화[시끄러움]**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말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뇨[하나님과 다투지 말자](전통사본)[58]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병영]**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군사들을 명하여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병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천부장과 군사들

58) Byz cop^{sa} 등에 있음.

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한 수단이었다.

〔11절〕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전통사본)[59]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소요와 위협을 모면하고 심신으로 피곤했을 그 날 밤에 주께서는 바울을 격려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는 신성(神性)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또 주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 방문을 사모하였고 또 서바나(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소원하였었다(행 19:21; 롬 15:23).

〔12-15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음모]**한 자가 40여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들은 형식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었다. 심령이 거듭나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 평소에 진지함이 없는 형식적 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땅히 그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거절하고 그들을 책망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상 그들은 다 한 부류이었다.

---

59) Byz vg^{mss} 등에 있음.

〔16-21절〕 바울의 생질[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말하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말하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히**[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共謀)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사용하셨다. 사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 일을 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개인적 일이나 단체적 일이나 우연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마 10:29).

〔22-24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말하되] **밤 제3시**[오후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명으로 결사대를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의 안전한 피신을 위해 천부장의 빠른 조치와 470명의 호위병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뿐이다.

〔25-30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말하기를]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전통사본)[60]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전통본문)[61] **하였더라.**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문안하며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과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에 대해 말하였다. 이방인이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를 유대인들은 정죄했다. 사람은 참으로 악하다.

〔31-35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병영]**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말하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보병의 보호를 받으며 안디바드리로 갔고 거기서 마병의 호송을 받으며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섰고 송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갇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이제까지 그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다.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성도는 바르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고 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했다(딤전 1:18-19). 우리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

60) Byz (syr^{p}) cop^{sa} 등에 있음.

61) Byz ℵ vg^{cl} syr^{p} arm 등에 있음.

해야 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 공회는 매우 해이해져서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이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이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나는]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고 말했다(행 24:14-15). 히브리서 6:1-2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 . .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확신해야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인 동시에 기독교가 참되며 확실한 구원의 진리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기독교의 참됨을 확신해야 한다.

셋째로, 40여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였으나 그 일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그것을 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고 그것이 천부장에게 알려져 천부장은 바울을 470명의 군사들로 호위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주시지만 그것을 모면케도 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시편 23:1-4,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앙 중에서 지키시고 건지실 수 있다(시 91편). 성도들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함

〔1-5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변호인]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말하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형통한 것](전통사본)**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더둘로의 말은 아첨하는 기운이 역력했다. 아첨은 반쯤 거짓말이다. 성도는 세상 위정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바울에 대해서는 '염병에 걸린 자'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구원의 복음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복음이 바울을 통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6-9절〕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우리가 잡아 우리의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강압적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취하여 갔고 고소자들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하였나이다.](전통사본의 일부)[62]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고 말하나 그것은 사실과 달랐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숨겼다. 그러나

---

62) Byz^{pt} TR it vg^{cl} syr^{p} arm 등에 있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셨고 사도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전도 사역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섭리하셨다.

〔10-13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 총독 앞에 비굴하게 아첨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14-16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받아들이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전통사본)[63]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도(道)를 좇아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놀라운 신앙고백이며 증거이었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다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소망했다.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 믿음이어야 한다.

〔17-21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결례**[정결의식]**를**

63) Byz syr^{p} 등에 있음.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내게서](전통본문)[64]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공회 앞에서 정죄받은 죄가 없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단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전통적 유대인들이 믿고 소망한 바이었다. 그것은 정죄받을 죄가 될 수 없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정당성이 없었다.

〔22-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말하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수종하고 접근하는](전통사본)[65]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바울의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에 대해 매우 너그러운 처리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결박되어 고난 당하는 바울을 이만큼 위로하셨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24-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66]**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

---

64) Byz C vg syr^{p} cop^{bo} arm 등에 있음.

65) Byz cop^{sa} 등이 그러함.

66) 야고보를 죽였던(행 12:1-2)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둘째 딸이었음.

님이시며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속죄사역으로 이루신 의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는다는 소식이다.

절제는 돈, 명예, 권세,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이며 특히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에게 매우 요긴한 덕이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죄성과 이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유념해야 할 덕이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전 9:25). 기독교는 사람의 모든 욕구를 금하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지만, 성도는 육신적 쾌락을 절제할 때 승리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이다(갈 5:23).

또 심판은 기독교 복음의 대전제이다. 그것은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에게 시시때때로 징벌하시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이다. 최종적 벌은 지옥이다.

〔26-27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받고 놓아주기를](전통사본)[67]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뇌물을 바라는 욕심을 가졌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그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였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재판관은 아니었다. 그는 정의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했고 돈에 대한 욕심을 품었다. 민심과 여론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진리와 의는 때때로 소수편에 있다.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경과 이성에

67) Byz $cop^{sa\ bo}$ 등이 그러함.

근거하여 진리와 의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이다.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나 벨릭스는 아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 믿는다고 증거하였다(14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정통 유대교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믿음이었다. 성경은 진실한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일들을 증거한 증거의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졌다(딤후 3:16).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다 믿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모든 말씀을 다 귀히 여기고 믿어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다(15절). 주 예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증거하셨다. 요한복음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들 중에 하나이다(히 6:1-2). 우리는 이 죄 많고 허무한 세상에 가치와 소망을 두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만 믿고 또 죽은 성도들의 복되고 영광스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셋째로, 성경의 진리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성경의 진리와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고 절제 있게만 살아야 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이 구원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죄에서 구원 얻은 자들로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고 또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로마서 6:12-13의 말씀대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5장: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함

〔1-5절〕 베스도(주후 59-61년)**가 도임(到任)한 지 삼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머잖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말하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벨릭스 후임으로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그것은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박멸을 위해 특별한 열심을 보였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열심이 있다. 갓 부임한 총독이 그들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을 상황이었으나, 베스도는 신중하게 답변했다. 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머잖아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가서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송사하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베스도의 생각과 답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의 살해 음모 같은 일에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6-8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10일 이상 지낸 후](전통사본)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말하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이튿날 재판 자리를 마련하였고 바울을 데려오게 했으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지만, 능히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오히려 바울은 총독 앞에서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범죄치 말고 떳떳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세속적 문제에서도 범죄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9-12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死罪)**[죽을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삽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말하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고 묻자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그들이 그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대 그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고 말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도록 결정하였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이었다. 이것은 옛 시대에 죄수의 인권을 존중한 좋은 일이었다. 옛 시대에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지구상에 사람

의 인권을 짓밟는 재판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재판은 매우 엄숙한 일이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와 재판자이시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할 일이다.

〔13-22절〕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68]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말하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멸하도록](전통사본)[69]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전통사본에는 생략됨)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査實)**[조사]**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이르되**[말하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말하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있은 지 몇 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다. 베스도는 바울의 일에 대해 왕에게 고하였다. 아그립바 왕은 자기도 그 일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할 때에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 들은 후 판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 요소이다. 유대의 종교

---

68) 이 아그립바 왕은 헤롯 아그립바 2세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었다. 그는 주후 48년부터 70년까지 팔레스틴 북부와 북동부를 다스렸다. 버니게는 그의 고모 즉 아그립바 1세의 큰 딸이었다. 작은 딸은 앞에서 나온 총독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이었다.

69) Byz syr^{p} cop^{sa} 등에 있음.

지도자들은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으나, 로마 총독은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멸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잠언도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고 말했다(잠 18:17). 재판하는 이들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온 후 지체치 않고 재판을 연 것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이방인 총독의 양심적이고 바른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재판에서 원고들이 서서 그의 짐작하던 것 같은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며 바울의 죄가 사형시킬 만한 죄가 아님을 알았다.

〔23-27절〕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威儀)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나의 주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 있는 복장을 하고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베스도는 아그립바 왕에게 이 사람이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 두지 못할 자라고 고소했으나 그가 살피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는 것과, 그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으나 그 죄목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아 혹시 심문한 후 무슨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이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던 죄수 바울에 대해 이방인 총독 베스도는 그가 죽을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일반인보다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사람은 기본적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시시비비를 판단해야 하고,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것도 은밀히 살해하려 하였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도 못했고 이방인 총독이 그를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한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주장하였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로마인들의 법은 피고가 원고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절차이며 하나님께서 세속사회에 주신 은혜이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 사회의 재판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회에서의 재판 사건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셋째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나 성전에 대해서나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 죄를 범치 않았다고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롬 6:22).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주 앞에서 흠 없이 평안 중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교훈하였고(벧후 3:14),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했다(요일 3:9-10).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26장: 아그립바 왕 앞에서 증거함

〔1-3절〕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참으며](KJV, NASB, NIV)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손을 들거나 손짓하는 동작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시선을 모으는 동작이거나 시끄러운 무리를 조용하게 하는 동작이었던 것 같다(행 12:17; 13:16; 19:33; 21:40; 26:1).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아첨하지 않고 차근히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4-8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자신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의 생활을 했다고 증거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파이었다. 그와 반대되는 파는 사두개파이었다. 그들은 당시에 천사도 영(靈)도 부활도 믿지 않는 자유주의파이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다. 성경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다. 신명기 4:2에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믿는 보수신앙은 바른 신앙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의 문제점은 단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데 있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형식주의와 외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 그는 자신이 심문받는 까닭은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문제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

〔9-18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내게] **이르되**[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그가]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일꾼]**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예수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 찬성했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외국 성에도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 했다. 그것은 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 행한 것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큰 악을 범하게 할 수 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살아계셨다. 만일 그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바울에게 나타나 말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셨다. 그는 바울을 구원하여 일꾼과 증인 삼기를 원하셨다.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죄씻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속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들은 장차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 사역이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19-23절〕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에게 직무를 주신 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였다. 회개는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

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회개를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가리킨다.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동반한다. 복음 신앙이 중요하듯이, 의롭고 선한 행위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죽이고자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고 그가 불러 세우신 종 바울을 죽이려 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그때까지 전도하였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였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이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빛은 의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한다. 이 세상은 무지와 부도덕으로 어두워져 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의(義)를 이루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셨다.

〔24-32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말하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말하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혹은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말하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외쳤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한다.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거기엔 육신의 삶의 끝인 죽음과 허무만 남아 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상당히 알고 계실 줄 믿는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위의 지역들에 널리 퍼져 있었다. 아그립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그가 유대인일진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말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그립바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혹은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바울은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였다.

아그립바 왕과 총독과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아그립바 왕은 그가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 지도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힘이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심령이 밝아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시다(23절).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는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다. 그는 참 지식을 얻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슬픔과 근심이 많은 자가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을 존재이며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세상에 구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구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며 거룩하게 된 무리들 중에 기업을 얻는 것이다. 구원 얻은 자들이 교회이며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무이었고 사도들의 직무이었고 신약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직무이다. 우리는 영적 어두움, 즉 무지와 죄와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사탄과 악령들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야 할 직무를 받았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만인에게 전해야 한다.

셋째로, 빛을 받은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살전 4:3). 즉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사 48:22; 57:21).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질 것이다(마 3:10). 죄의 값은 죽음이다(롬 6:23). 우리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롬 8:13). 중생한 자는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요일 3:9). 사람은 그의 행위로 그가 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마 7:16).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마다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27장: 로마로 호송됨

〔1-2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야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隊)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였는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신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혔던 자요 그의 동역자이었다(골 4:10; 몬 24).

〔3-8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美港)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성에서 가깝더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바울이 친구들의 대접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율리오는 바울의 경건하고 정직한 인품에 좋은 인상을 받았거나, 혹은 같은 지역의 동료인 이탈리아 대(隊)의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시돈에서 미항에 이르기까지는 약 1,000킬로미터 이상 되는 긴 여정이었고 거기서 이탈리야까지는 갑절을 더 가야 하는 먼 길이었다.

〔9-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짐)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인 9월말 즈음을 가리킨다.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해하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다보는 생각이 있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船主)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관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때때로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눈과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도 있다.

〔12-14절〕 그 항구가 과동(過冬)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 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카타 리바 κατὰ λίβα)[남서로](KJV, NASB, NIV), **한편은 동남을**(카타 코론 κατὰ χῶρον)[북서로](KJV, NASB, NIV)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유로클뤼돈](전통사본)[70] **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의 계획대로 잘되는 줄 알고 출발하였으나 얼마 못되어 유로클뤼돈이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어렵게 보이는 것도 쉽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쉬워 보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잠언 3:6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하였다.

〔15-20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클라우덴](전통사본)[71]**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

---

70) Byz syr^{p} 등. '유라굴로'(Εὐρακύλων)는 북동풍을 가리키나 '유로클뤼돈'(Εὐροκλύδων)은 강한 파도를 일으키는 남동풍을 가리킨다고 한다.

71) Byz vg^{mss} 등이 그러함.

[작은 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빨아들이는 모래, quick-sand)**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바울에게 이 어려운 일을 주셨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고난을 어느 정도 함께 당한다. 그것은 물론 마귀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으며 극심한 고난까지도 성도를 단련시키는 유익한 일임을 믿는다. 로마서 8:28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했다.

〔21-26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통해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또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착오 없이 이루고 계셨다.

〔27-32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와지는[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이십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배 끝부분]**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

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배 앞쪽]**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드리아 바다는 마게도냐-아가야 지방과 이탈리아 사이의 바다이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권적 하나님이시며 기적을 행하신 자이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과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배를 운전하는 데는 사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해서 우리는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연적 수단들을 다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33-34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말하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육신의 건강과 힘을 회복해야 했다. 바울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 방식은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이 아니다. 기적은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행위일 뿐이다.

〔35-41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기꺼이]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

는[닻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을(혹은 배를) 바다에 맡기는](KJV)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땅에] **걸매 이물**[뱃머리]**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배 끝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바울의 마음에는 굳센 믿음과 평안이 있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본 사람들은 다 기꺼이 음식을 취하였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졌다.

〔42-44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백부장은 한번 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음의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해 백부장을 사용하셨다. 여기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증거된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해 다 구원을 얻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뵈닉스라는 좀더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을 때, 바울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말했으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탄할 듯하게 출발하였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범사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잠언 3:6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

며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일에 대한 평안한 마음과 확신을 얻은 후 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성도의 삶에는 간혹 유로클뤼돈 같은 광풍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은 착오 없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고 환난이 많은 세상이다. 게다가 성도에게는 특별한 고난도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다(빌 1:29).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20). 또 그는 우리 속에 오실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16).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바울은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실지어다"라고 말했다(살후 3:16). 히브리서 13:5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방식을 알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실 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었다. 성경이 다 기록된 후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일반적 섭리 방법이 아니다.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울은 유로클뤼돈 광풍을 인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14일 동안 고난을 당해야 했다. 뱃사공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했다. 그들은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사용하여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주권적 작정과 주권적 섭리를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도리어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28장: 로마에서도 전도함

〔1-2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는 말타(Malta)라는 섬으로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시실리아 섬 남쪽의 작은 섬이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과 친절을 베풀었다. 비가 오고 날이 찬 때이었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 속에 두신 선한 마음이다. 문명의 발달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는 부족하고 오히려 사람의 사람다움을 메마르게 하고 사람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심지어 기계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3-6절〕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카답토 καθάπτω)[그의 손에 꼭 달라붙어 있는지라](KJV, NASB, NIV).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神)이라 하더라.**

한 뭇은 한 짐보다 작고 한 줌보다 큰 단위를 뜻한다. 열 줌은 한 뭇이고 열 뭇은 한 짐이다. 원주민들에게는 살인한 자가 비록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어도 반드시 죽는다는 의식, 즉 악한 사람이 천벌 곧 공의의 형벌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속에 심어주신 도덕 의식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그 원주민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능력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있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고 한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증거이기도 하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도덕성과 종교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이다.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고, 그것은 전도의 접촉점과 발판이 된다. 사실, 이 일반 은혜 때문에 세상은 극도로 악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극악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8장은 멸망당할 마지막 세상의 중심 도시를 사치와 음란으로 더러워진 바벨론이라 불렀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7-10절〕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뒤센테리아 δυσεντερία)(전문적 의학용어)(dysentery)**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사흘 간의 친절과 호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치료해주셨고 또 그 외에 다른 병자들도 고침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마 6:3-4).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울 일행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었을 것이다.

〔11-16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過冬)한[겨울을 지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Διόσκουροι)['제우

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뜻)**라. 수라구사**(시라큐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형제들]**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시장]**와 삼관**[세 채의 여관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백부장은 죄수들을 시위대장에게 넘겼으나](전통사본)[72]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시라규스는 시실리아 섬의 동쪽 항구이며 레기온은 시실리아 섬 건너편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 항구이었다. 바울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은 주의 진실한 제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주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마 10:40).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종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그들은 로마에 들어갔고 백부장은 죄수들을 시위대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 백부장의 특별한 배려로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도착하여 바울 곁에 계속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그의 우거하는 집'(23절) 혹은 '자기 셋집'(30절)에서 2년 동안 유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때는 주후 62년경이며, 그가 그 재판에서 풀려났다가 두 번째로 투옥되어 순교한 때가 주후 68년 봄이라고 본다.

〔17-19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말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관습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바울은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이 조상의 관습에

72) Byz vg^{mss} cop^{sa} 등에 있음.

대해 잘못한 일이 없는데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므로 부득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요 자기 민족을 송사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변명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기를 원하였다. 바울의 처신은 지혜롭고 정당했다. 전도자에게는 행동의 정당함과 인격의 신임성이 중요하다. 전도자가 거짓되다면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며 그가 악을 행하거나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주의 종들에게는 거짓되다거나 불법하다는 말보다 더 심각한 비난은 없다. 그러므로 비록 마귀의 방해 때문에, 또 사람들의 무지와 미움, 이기심과 열등감 등의 연약성 때문에 전도자가 사람들의 오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그가 그의 결백함과 신임성을 변호하는 일은 필요하고 지혜롭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0-22절〕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말하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앎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며](원문)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로 권하더라**[설득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요 주제이며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영광스런 천국으로 완성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4:17).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시작된다. 바울은 이 복음을 구약성경에 근거해 증거하고 권하였다.

〔24-29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말하되] **성령이**[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말씀하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사 6:9-10)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은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더라](전통사본).[73]

복음이 증거될 때에 믿는 자도 있으나 믿지 않는 자도 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항상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적절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바울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가 전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했다. 그것은 이상한 영적 어두움이었다. 참으로, 구원은 전도자에게나 죄인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롬 9:16).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시다. 물론 죄인 자신이 회개하고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회개치

73) Byz vg^{cl} arm^{ms} 등에 있음.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30-31절〕 바울이 온 이태[2년]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2년은 재판받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 복음은 그 후에도 계속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전파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애가 있었고 도덕 의식과 종교심이 있었다.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다운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실상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부자유스런 상태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 얻은 자들만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셋째로, 바울의 전도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다. 전도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사람은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져 있고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구원 얻은 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회중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낙심치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원로목사.
〔역서〕 J. 그레셤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사도행전 강해

2004년 8월 15일 1판
2017년 11월 17일 2판, 2021년 3월 10일 3판
2025년 6월 11일 3판 수정중

저 자 **김 효 성**

발행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팩스 02-337-4869
oldfaith@hj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65-4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7판]. 198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4,000원.
3. 김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2판]. 146쪽. 4,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2판]. 166쪽. 4,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7판]. 88쪽. 2,0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1판]. 126쪽. 3,0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7판]. 240쪽. 5,0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1판]. 34쪽. 2,0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4판]. 356쪽. 7,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3판]. 205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3판]. 179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3판]. 233쪽. 5,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3판]. 217쪽. 5,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3판]. 255쪽. 6,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3판]. 132쪽. 4,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3판]. 190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3판]. 703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3판]. 623쪽. 10,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3판]. 406쪽. 8,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3판]. 360쪽. 7,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3판]. 295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3판]. 350쪽. 7,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4판]. 224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3판]. 363쪽. 7,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4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3판]. 120쪽. 4,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3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3판]. 170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2판]. 92쪽. 3,000원.
44. 김효성,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강해**. [2판]. 164쪽. 4,000원.
45.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3판]. 109쪽. 3,000원.
46.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3판]. 149쪽. 4,000원.
47.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8.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3판]. 175쪽. 4,000원.

☆ **주문: oldfaith.net/07books.htm　　전화: 02-334-8291**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